차 례

장시

백두산은 선언한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김 태 룡

조국땅 북변에
거인처럼 높이도 솟아
천하를 굽어보는 력사의 증견자
백두산이여
너의 모습에 넋이 끌려
내 붓끝을 가다듬으며 다시 왔노라

이 땅에는 모든 사변이 백두산과
　통한다는
뜻이 깊은 명구가 있어
세기와 더불어 전하여지는
전설같은 사변들을 되새기면

백두의 숭엄한 웅좌
마음속에 우렷이 솟구치군 하거니

그래서 이 산정에 오르면
성스러운 력사의 그 갈피갈피를
더욱 뜨겁게 안아보는것인가
백두가 전하는 6.15이야기도
저 멀리 천리수해마냥
솨―솨―
이 가슴 끝없이 설레여주누나

바로 이곳이다
6.15가 탄생한 력사의 성지
상봉과 기쁨
웃음과 희망
기대와 좌절
열다섯해세월의 만단사연을
력력히 굽어보며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여온 백두여

너는 오늘 겨레앞에 시대앞에
무엇을 전하느냐
무엇을 웨치느냐

*　　*

세상을 놀래울
력사적사변을 예고하는가
하얀 숫눈우에
성스러운 발자욱이 새겨지고있었다

삼라만상은 고요에 깃들고
소리없이 내리던 함박눈도 멎고
그러나 그이의 사색은 더욱 깊어지나니
깊어지는 사색속에 의지는 용솟음치고
용솟음치는 의지는 통이 큰 결단으로
　이어지고

어느분이시냐

오, 그이는 백두가 주인을 맞이했다고
금구슬 은구슬 령롱한 해빛 뿌려
　앞길 밝히고
흰눈보라갈기를 일으키며 환호하는
희세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

저 멀리서 동터오는 려명
장군님 동행일군들에게 말씀하신다
— 동무들 조국의 새 아침이 시작되오
　우리 백두산정점에 올라
　해맞이를 합시다

생각도 깊어지누나
백두산 장군봉으로 향한 그 길이
장설만을 헤치며 오른 길이였다면
강추위만을 이겨내며 오른 길이였다면
그 불멸의 화폭 추억속에 그려보는 마음
이리도 깊은 감동에 젖으랴

사면팔방으로 달려드는
제국주의 떼무리들
시시각각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걸음걸음 앞길에는
시련의 첩첩층암이 가로막아나서던
아 인민이 못 잊고
력사가 잊지 못하는
1990년대의 준엄한 시기여

인민의 운명만을 생각하셨던가
조국의 안녕만을 생각하셨던가
그이 심장속엔
둘이 아닌 하나의 조선
통일된 삼천리강토가 더 굳게
　자리잡았거니

위대한 선군의 기치 펄펄 휘날리시며
쉼없이 이어진 장군님의 전선길

그 길은 그 길은
조국통일과도 잇닿아있은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길

백승의 선군정치로
이리떼처럼 덤벼들던 침략의 무리
　평정하시고
강성번영의 열매 주렁질 이 땅우에
통일의 봄우뢰도 장쾌하게 터쳐주시려
그이 또다시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나니

거세게 불어치는 눈보라
하늘을 갈가리 찢는 칼바람소리는
장군님 옷자락 부여잡고 터치는
겨레의 한서린 호곡인가
동강난 이 땅이 터치는 아픔의 절규인가

겨레여, 분렬의 먹구름 흩날려버리고
통일의 려명 그대들 머리우에 비쳐주리라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은 이 강토에
혈육의 뜨거운 피가 흐르게 하리라
북남수뇌상봉으로
21세기 통일의 대문을 휘황히
　열어놓으리라
오, 이것이 장군님 마음속에 고패친
　통일웅지였거니

역시 백두산장군다운 대결단이라고
호방한 웃음발인양
백두는 흰눈갈기를 멀리 제주도
　백록담까지
휘뿌리며 휘뿌리며
바야흐로 도래할 민족의 대사변
봄우뢰를 터치고 지심을 뒤흔들며
　축복했어라

그때부터였어라
백두산이 굽어본 삼천리강토는

우리 민족끼리시대가 꿈같이 펼쳐진 땅
그 땅에 흐른 감격의 날과 달이였고
그 날과 달속에 피여난 6.15화원이였다

너무도 많은 아픔을 걷어내고
너무도 많은 기쁨과 환희를 준 6.15
흘러가는 날이 아쉽고
마중오는 날이 기다려지던
아, 우리 민족끼리시대여!

물어보자
6.15의 덕을 입어
6.15의 날과 달에 살아
우리 누린것 무엇이였는가를

물어서 알랴
생전엔 보지 못하리라던 혈육들
서로 부둥켜안고 터친 눈물이 다
　이야기하고

활짝 열린 하늘길, 땅길, 바다길로
통일노래 부르며 굽이쳐간
우리의 발자취가 다 말해주고있거니

6.15가 있어 민족이 하나되고
민족은 통일에 살게 되였노라는 격정
평양과 금강산
광주, 부산에서 터져오를 때
백두여 너도 감격에 벅차
수많은 통일사절들 네 품에 불러들여
천하절경 해돋이광경을 펼치고
천지의 맑은 물맛으로
민족의 정기를 부어주지 않았더냐

허나 그 시절에 어찌 알수 있었으랴
이제는 통일이 눈앞에 왔다고
그토록 희열에 넘쳐있던 겨레의 앞길에
또다시 모진 대결광풍이 휘몰아치고
6.15의 열매들이 참혹하게 짓밟히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질줄을

6.15가 열어주어 꿈같이 오고가던
그 길이 다시 가로막히고
서로 만나 혈육의 정 나누던 가슴들이
그 시절을 애틋한 추억으로만 안고
　살아야 하고
6.15의 감격을 노래하던 나의 붓이
6.15에 도전하는 분렬미치광이들을
　단죄하는
분노의 창끝으로 변할줄 어찌 알았으랴

세계제패야망에 혈안이 된
가증스러운 미제
우리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온 겨레를 핵전쟁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대양건너 본토에서
해외의 침략소굴들에서
원한의 땅 남녘에서
지금 이 시각도 지랄발광하고

침략자 미제를 상전으로 섬기는
추악한 괴뢰역적패당들
6.15식통일은 안된다고 떠벌이며
북남관계개선을 한사코 가로막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고있거니

70년을 이어온 민족분렬의 비극
더는 용납할수 없기에
한민족이 서로 총구를 맞대고
불신하고 대결하는 암흑의 세월
더이상 되풀이할수 없기에
겨레의 운명을 지켜
6.15의 운명을 지켜
《따웅―》
백두산호랑이 나섰다

보라

우러러 성스러운 백두산상에
어느분이 서계시는가를
그이는 백두산 높이 솟아 3대를 이어
  맞이한
희세의 천출위인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백두산은 자기의 주인
자기의 위대한 아들을 맞아
그처럼 격동의 눈보라 일으켰고
폭풍쳐 설레였더냐

맵짠 칼바람도 아랑곳없이
사정없이 휘뿌려지는
돌가루 눈가루의 회오리속에서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우리 원수님
우러러 담력과 배짱이 넘치는
강인담대한 위인의 거룩함이여

눈보라의 폭풍열로 드세차고
눈보라의 타격력으로 맵짠
백두령장의 그 기상, 그 담력앞에
감히 맞설자 누구냐 나서라

— 미제가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전률,
쓰디쓴 참패
우리와의 전쟁을 통해 저들의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라

—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도전해나서는자
그가 누구든 최후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마음 든든하다 그이 계시기에
그이의 백승의 기상
무비의 담력으로 용솟음치며

우뢰치고 번개쳐 눈보라폭풍을 부르는
백두산이 있기에

곰팡이낀 뒤골방에 똬리를 틀고
모략삐라제작에 열을 올리고
모략나발 불어대며 부산을 떠는
천하의 고약스럽고 좀스러운자들아
어리석다 가련하다
그따위 쏠라닥질로
백두산을 흔들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기회에 내 똑똑히 말해주노니
속에는 칼을 품고
겉발림으로 《대화》를 부르짖는자들
호시탐탐 북침의 기회만을 엿보며
헛된 망상을 추구하는자들
너희들과는 결단코 6.15세상에서
　살수 없고
민족이라는 한울타리안에서 살수 없기에

온갖 잡스럽고 어지럽고 더러운
오물들 다 날려보내고
가장 정의롭고 순결한 세계만을
드넓은 한가슴에 품어안는 그 기질로
백두는 날강도 미제와
그에 붙어 기생하는
좀벌레같은 괴뢰역적패당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선언하였나니

백두산이 결심하여 못해낸 일이 없고
백두산이 결심하면 사변은 이루어졌다
이제 백두의 칼바람으로
온갖 어지러운 광풍 쳐몰아낸 땅에
다시 6.15의 화원은 백화로 만발하고
6.15의 흐름은 도도히 굽이쳐흐르리라

겨레여 백두산을 우러르라
6.15공동선언은 백두산선언
6.15대하는 백두에 그 시원을 두고있거니

우리 원수님 서계시였던
백두산 장군봉에 누구든 한번 서보면
몸도 마음도 새로 태여나
밝아오는 통일해돋이
신심에 넘쳐 마중가리라

아, 통일의 려명을 불러
백두산이 불타오른다
백두령장 높이 모시여
7천만 우리 겨레 여기 산정에 올라
목청껏 통일만세 부를 그날은 멀지
않았다
겨레앞에 시대앞에
백두산은 이렇게 확신에 넘쳐 선언한다
삼천리강토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백두는 웨친다

단편소설

봄을 부르는 소리

오 송 심

1

눈부신 아침이다. 쟁글쟁글 내려쪼이기는 하나 아직은 좀 새초롬해보이는 볕이 창유리와 천정에서 아롱인다. 반쯤 열린 창문사이로 안산교외의 청신한 대기가 흘러든다.

전자피아노의 건반을 살근살근 짚어가며 노래부르는 흰 샤쯔차림의 녀인을 맞은편 벽거울이 통채로 비껴안고있다. 명색이 봄맞이공연이고 때도 화창한 계절이건만 봄기분을 모르는 그의 눈길은 악보대우의 오선지를 담담하게 훑어내릴뿐이다. 이따금 손전화기쪽에 귀를 강구다가는 미간을 살짝 찌프리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악단

성원들이 제가끔 진을 치고서 《쿵짜쿵짜 쿵짜짜…》 하며 아침부터 법석 끓는 건너방들과는 대조적인 흐름이 안온한 방안을 감돌고있다.

길가에 늘어진 붉고 흰 꽃가지들이 한들대며 마음 들썽하게 하는 이 봄날, 련습실에 붙박혀 공연준비에 열중하고있는 이 녀인은 림하영이다. 살짝 들린 턱이며 선뜩한 느낌마저 드는 날카로운 코날에 록록치 않음이 엿보이는 림하영은 대중가요 가수이다. 미모보다는 독특한 음색으로 관객의 간장을 녹이는 솜씨가 뛰여났고 가다가다 TV련속극에도 출연하여 매혹적인 연기로 여운을 주는 40대의 녀인이다.

물찬 제비같이 아릿다운 갓스물의 처녀예술인들의 신선미에 밀리우기 십상인 중년의 가수임에도 개성적인 매력으로 나날이 인기가 높아가는 이 녀가수에게는 남다른 인생사가 있다.

림하영의 식솔은 단 둘, 가장인 그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애가 전부이다. 흔히 녀성예술인에게 끌려든 대중의 호기심은 다음순간 무대

배경같은 그의 남편에게로 쏠린다. 하여 녀성예술인들은 그럴듯하고 믿음직한 배경을 갖추는데 은연중 신경을 쓰게 되는것이다. 미끈한 용모에 거쿨진 몸집, 호방한 성격에 해학적인 말솜씨, 안정되고 멋들어진 직업에 세련된 행동… 하건만 림하영의 배경은 버들가지처럼 회친회친한 총각애로 너무나 왜소하다.

뭇녀인들처럼 림하영에게도 련정으로 가슴 들먹이던 처녀시절이 있었고 찬탄과 시샘의 눈길들이 엇갈리던 혼례식이며 새살림의 꿈에 부풀던 신혼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 달짝지근한 《사랑》타령으로 《영원한 행복》을 운운하던 남편도 있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애정에 주려온 림하영은 순진하게도 무아경에 빠져 아무것도 분별할수 없었다.

어느날 이 모든것이 별안간 신기루마냥 없어졌다. 일찍 과부가 된 어느 재벌의 5촌조카딸에게 훌쩍 옮겨간 위선자, 극단한 리기에 물젖은 비렬한이 바로 림하영의 첫사랑이였다. 재력도 없

고 세줄도 없는 무명가수인탓에 림하영은 단즙을 다 빨리운 껌처럼 버려진것이다.

창졸간에 들쓴 오욕으로 림하영은 항변 한마디 못하였다. 천길나락에 떨어진것 같은 절망에 사지가 결박당한듯 옴짝달싹할수 없었다. 노래도 세상도 귀찮아졌다. 살아 무엇하랴싶어 생을 포기하려던 림하영은 최후의 시각 새 생명의 움직임에 멈칫하였다.

(아기에게야 무슨 죄가…)

림하영은 이를 악물고 속다짐하였다. 배신으로 당한 수치와 아픔에 맥없이 주저앉는 약자가 아니라 배신을 딛고 일떠서는 강자가 되리라.

(아가야, 너만 있으면 엄만 꼭 이겨! 부디 너도 이겨다오.)

림하영은 파렴치한 기만으로 순정을 짓밟고 반찬훔친 도적고양이마냥 미국으로 달아빼는 어제날의 남편, 《남의 편》을 쓰겁게 바라보았다.

돌아다보며 울기보다 앞을 보며 웃으랬다. 그

래, 나의 유일한 희망이고 생의 전부이며 내 마음의 예수인 우리 정현이! 엄마의 든든한 버팀목되여 지친 어깨를 받쳐줄 착한 아들아, 너의 밝은 장래를 이 어머니는 굳이 믿는다. …

림하영은 바람세찬 인생길에 등불같은 아들애를 위하여 동정도 비웃음도 한몸으로 막으며 사생결단으로 기량훈련도 하고 무대우에도 뛰여올랐다. 사생활의 밝은 면보다 그늘면이 더 시시콜콜 들추어지는 영화배우로의 등장도 마다하지 않았다. 다름아닌 아들애를 위해서였다. 그 나날 림하영은 뭇시선을 오연히 굽어보며 랭소할 줄 아는 담찬 녀성으로 변모되였다.

보이는 적,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끊임없는 암투라는 가혹한 생활속에서 다시는 속지 않으리라 이를 악물고 살아온 지난 세월, 당하지 않으려면 강해야 한다는 림하영의 지론은 비단 자기에게 향해진것만이 아니였다. 아들애에 대한 강한 요구성으로도 나타났다.

풀대같은 약골이 아니라 강풍에도 맞서는 참

대가 되기를 바라는 애모쁜 마음에서 림하영은 아들에게 무작정 자애롭기만 한 어머니로 될수 없었다. 헛된 길에 들세라 아들을 맵짜게 다불러대며 앞자리로 내몰았다.

고맙게도 정현은 림하영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손꼽히는 달리기선수에 날렵한 수영솜씨도 갖추고 전교적인 학업순위 세번째를 벗어난적이 없는 열일곱살의 날씬하고 맵시있는 총각으로 번졌던것이다.

며칠전 저녁이였다.

부엌문가에 기대여 서서 앞머리를 쓰다듬던 정현이가 한창 동자질하던 림하영을 향해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던졌다.

《제주도 너무 멀지? 려행비가 33만원이라나. 어머니, 나 그만둘가?》

전에없이 능청스러운 아들애의 태도에 웃음도 나고 풍족치 못한 가정형편이며 떼놓기 아쉬워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어른스러움에 림하영은 속이 알찌근하였다.

(학교에서 말이 있었구나. 수학려행이라…)

암독수리마냥 지켜온 귀한 아들이였다. 림하영은 약해지려는 자신을 다잡으며 아들을 꾸짖었다.

《속대 왜 그리 연해? 그리구 일생에 한번뿐이잖아. 시야좁은 못난 사내 되지 말아.》

아들한테라기보다 자신에게 하는 꾸지람이였다.

다음날부터 림하영은 바삐 다녔다. 새옷도 사오고 색다른 간식도 준비하고 려행비도 마련하였다. 누구에게도 짝져서는 안될 보배아들의 길차비였다. 힘에 부쳤어도 림하영은 기뻤다. 나래를 펴고 창공을 훨훨 날을 아들애의 앞날이 그의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렇게 아들애를 제주도로 떠나보낸 림하영이였다.

《삐리삐리─》

불현듯 귀전을 때리는 신호음에 림하영은 손전화기를 들여다보았다. 순간 온 얼굴에 웃음발

이 피며 환해졌다. 고개를 기웃하고 싱긋 웃음짓는 아들애의 모습이 손전화기화면을 가득 채웠다. 엊저녁부터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는 아들애의 소식이 이제야 당도한것이다.

뒤미처 날아온 통보문에 림하영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 제주도가 고대라나요. 멋진 바다경치 엄마와 함께 봤으면… 금요일엔 돌아갈게요. 창경원구경약속 꼭꼭꼭! 엄마는 봄별, 정현인 봄바람.

만경창파를 헤가르는 려객선안이라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통보문송신방법을 선택한 모양이였다.

아들애의 살뜰한 통보문이 림하영을 비로소 봄의 훈향에 함뿍 젖어들게 하였다.

(그래, 봄이구나.)

림하영은 창문을 활 열어젖혔다. 두손을 뒤로 깍지낀채 기운껏 대기를 호흡하였다. 단박에 기분이 붕 떠오른 림하영은 짐짓 으름장의 회답

을 날렸다.

— 꽤 빨리두 알리네. 너무 재미나 감감 잊었지? 돌아오면 혼내줄라.

흥그러운 마음에 어느해 봄날이 뭉게뭉게 흰 구름인양 떠올랐다.

정현이 급성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것은 애가 여섯살 잡히던 생일달이였다. 열에 떠서 숨을 할싹이는 어린것을 지켜 림하영은 꼬박 닷새를 뜬눈으로 앉아있었다. 자식의 병을 대신 앓고싶은 애끓음속에 마음을 앓았다. 그러면서도 시종 웃는 얼굴로 정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엄마손은 약손이랬지?》

까실까실 말라드는 입술을 달싹이며 기대어린 눈빛을 보내는 정현에게 림하영은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용케도 병을 이겨낸 정현이가 기특해 림하영은 애의 생일날을 맞으며 오래간만에 봄나들이를 갔었다.

파아란 잔디밭에서 좋아라 깡충대던 아들애

가 목을 젖히더니 두손을 높이 쳐들었다. 눈이 시그러워 잔뜩 쪼프리고 섰으면서도 웬 일인지 고개도, 손도 내릴념을 않았다. 한참후에야 아들애는 두손을 자기 볼에 가져다 대며 꿈을 꾸듯 중얼거렸다.

《히야— 따뜻해! 이건 엄마야. 엄만 내게 봄별이야.》

불면 날가 쥐면 꺼질가 애지중지 기울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애의 어린 마음에 따스하게 닿았던것이다.

이름못할 행복감에 휩싸인 림하영은 코끝이 매워나서 실눈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정현인? … 음— 장난 잘 치는 봄바람?》

《좋네! 엄만 봄별, 난 봄바람!》

봄하늘 가득 랑랑히 퍼져가던 그날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아니야. 정현이, 네가 봄별이구 봄바람이야. 넌 내 인생의 전부, 이 엄마의 영원한 봄이란다.)

림하영은 아직 솜털이 보시시한 아들애의 이

마전이런듯싶은 손전화기화면에 살며시 입술을 가져다 대였다.

키만 껑충했지 철부지에 불과한 아들애가 갑절 그리워졌다. 바래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보고싶은 정현이다. 이럴줄 알았으면 공연히 보냈구나싶었다. 이새를 활짝 드러내고 해님처럼 웃는 그애의 모습이 너무도 삼삼하여 림하영은 봄꿈에 취해 한동안 그린듯이 서있었다.

마침내 새로운 활기를 찾고 홍뜬 기분에 곡상을 재음미하려는데 문이 훌쩍 열렸다. 짧은 갈색머리의 신인가수 은미가 호들갑을 떨며 안으로 뛰여들었다.

《큰일났어요, 큰일요!》

《손기척 잊었어?》

톡 쏘는 림하영의 면박에 순간적으로 목을 움츠리던 은미가 손사래를 쳤다.

《진짜 큰일이예요.》

도대체 욕도 타지 않는 처녀이다.

림하영은 어이없이 흘겨보고 눈을 내리깔았다.

평소에 은미는 창법이건, 옷차림이건 무작정 림하영을 본따려 하면서 가지가지 조언을 듣고 싶어 몸살나 하였다.

그때마다 림하영은 특유의 싸늘한 미소로 매몰차게 밀막아버리군 하였다.

《숭배? 조언? 철없는것! 난 나고 넌 너야. 멋대로 살아!》

상대가 누구든 정을 줬다가 배신의 고배를 드는 바보짓을 두번다시 할 림하영이 아니였다. 하물며 경망스러운 촉새라고 단정지은채 시답지 않게 대해오는 은미임에야…

《들었어요? <세월>호가 빠졌대요. 글쎄 진도앞바다에…》

남의 말 곧이 안 듣는데 인이 배긴 림하영은 코살을 찡그린채 은미의 말허리를 꺾으며 퉁을 주었다.

《미쳤니? 새빠지게 방정은… 금방 정현이 통보문 받았다.》

신호음이 또 울렸다. 찍혀진 번호는 역시 아

들애의것이였다.

《이래두?!》

림하영은 은미를 향해 코웃음을 날렸다.

(녀석, 엄마가 그렇게 보구싶담.)

부푸는 행복감에 휩싸여 손전화기화면을 더듬던 림하영의 눈동자가 굳어졌다. 씌여진 글줄은…

— 쾅소리났어. 배가 기울어요.

림하영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오히려 통보문을 건너다본 은미가 울상이 되였다. 속이 달아서 림하영의 주위를 뱅뱅 돌던 처녀가 이번에는 인터네트에 접속한 제 손전화기를 림하영의 눈앞에 내들었다.

《봐요. <세월>호참사뉴스로 온통 벅작벅작해요.》

뜻밖의 충격으로 초점을 잃은 림하영의 눈에 무엇이 안겨올리 만무하였으나 은미는 그냥 볶아대였다.

《뭘 해요? 빨리 가봐야죠.》

은미의 핀잔에 림하영은 또 한번 놀라며 물었다.

《어델? …》

《아유, 진도지 어디겠어요.》

림하영은 목수건을 둘러준다, 코트를 입혀준다 부산을 피우는 처녀를 멍청히 보기만 하였다.

소식을 들었는지 뒤따라 방에 들어온 장발의 바스기타수도, 퉁투무레한 타악기연주가도 근심스레 림하영을 재촉하였다.

곁의 수선에 떠밀려 림하영은 어망결에 련습실을 나섰다.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나고 머리속이 온통 하얀게 어쨌으면 좋을지 몰랐다. 그냥 속이 후둑후둑하여 현관문에 기대선채 꼼짝 못하고있었다. 림하영을 특징짓던 평소의 침착과 랭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새된 소리에 흠칫하며 돌아보니 은미였다. 신용카드랑 들어있는 손가방을 잊었다고 복새를 떨며 달려왔다. 부랴부랴 묻어나와 택시를 잡아주는 동료악사들에게 떠밀리워 림하영은 진도길에 올랐다.

물매미같은 택시가 살같이 달리기 시작해서 한참만에야 림하영은 까맣게 질리며 겨우 외마디소리를 토했다.

《정현아—》

진도길은 더디기만 하였다.

시시각각 가슴을 조이는 우려로 가쁜숨을 몰아쉬는 림하영의 눈앞에 지난 일들이 생생히 되새겨졌다.

어느해였던가. 정현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다.

림하영은 별로 더럽지도 않은 창턱이며 가구들을 닳도록 힘주어 닦고 또 닦았다. 언짢은 심정을 누르자니 별수 없었다.

(게임에 빠졌댔을가? 아니면 또 만화방엘?! …)

림하영은 파들짝파들짝 앞으로 내딛는 벽시계의 초침에 신경질적인 눈초리를 언뜻 던졌다.

오후 5시 30분, 절제가 강한 림하영이 동료들과 한창 정구를 치고있어야 할 시간이다. 림하영에게 있어서 정구는 밥맛을 돋구고 스트레스해소나 하는 심심풀이오락일수 없었다. 싱싱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운동인것만도 아니였다. 생존경쟁의 치렬한 격투속에서 거짓에 속히우지 않게 두눈을 부릅뜰 기력을 충진하는 시간이였다. 때문에 정구치기는 림하영이 필사의 각오로 림하군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긴적 없는 일과였다. 그런데 이 저녁엔 일과가 깨여진것이다.

절컥하고 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림하영은 걸레질을 멈추고 돌아서며 나직이 물었다.

《어델 갔댔니?》

싱글거리며 집에 들어서던 아들애는 그만 굳어졌다.

《과외공부…》

《아직도?!》

즉시에 림하영의 서리발이 선 반문이 날아갔다.

림하영은 분이 치밀었다. 간담이 서늘해졌던 좀전의 일이 상기되면서 속이 후끈 달았다.

일이 있어 과외선생을 찾았던 림하영은 화제끝에 정현이 공부하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아동유괴범들이며 폭력배가 란무하는 현실이 더럭 겁을 몰아왔다.

급히 정현이의 손전화번호로 호출신호를 보내였다. 다행히도 전화를 받은 아들애가 천연스레 하는 말이 과외학습중이랬다.

림하영은 말없이 통화를 끊었다.

이제는 아들애마저 속이려든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배신감에 입술을 짓씹던 림하영은 일찌감치 일정을 굼때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지금껏 정현이를 초달할 생각에 옴해있었던것이다.

정구채를 꺼꾸로 잡아쥐고 쏘아보는 어머니를 쳐다본 정현은 대뜸 주눅이 들었다. 그제야 과외학습일정을 뚜꺼먹은 사실이 들장난것을 알아챘던것이다. 그는 어머니앞으로 주춤주춤 걸음

을 옮겼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래. 용돈 모은걸루 튜립 샀어, 엄마가 좋아하는. 주변 꽃방엔 카네숀뿐이고 그래 돌아다니다가…》

림하영은 속이 울컥하였다.

(어린 녀석이…)

하지만 양보할수는 없었다.

《누가 그런짓 하래? 말해봐. 엄마가 뭘 질색해?》

아들애는 울먹울먹하며 대답하였다.

《거－짓－말.》

《또?》

《우－는－거.》

《공부 잘해 큰사람되긴 틀린 자식! 엄만 용서 못해.》

림하영은 정구채손잡이로 탁자를 탕탕 두드렸다.

아들애는 고개를 떨구었다.

속을 도사려먹은 림하영은 아들애에게 매를

안겼다. 아니, 약해지려는 자신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그날 밤, 림하영은 정신없이 곯아떨어진 아들곁으로 갔다. 빨건 줄이 간 허벅지에 약을 발라주며 한숨짓다가 《엄마—》 하는 아들애의 부름소리에 숨을 죽였다. 흠칠 놀라며 바라보니 잠꼬대였다.

흔히 아버지가 혼을 내면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니가 꾸지람하면 아버지를 찾는것이 철부지들이다. 역성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응석이랄가.

그런데 아들애는 방금 분명 《엄마》라고 하였다. 어머니한테서 아픈 매를 벌었건만 잠결에조차 다른 누구도 아닌 어머니를 부르는 아들애의 모습은 림하영의 심금을 후려쳤다. 랭정의 보루는 더이상 견디내지 못하고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졌다.

(정현아, 나쁜 이 엄마 욕해라.)

림하영은 손등을 깨물어 흐느낌이 새여나가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 허나 마음의 뚝을 넘어 두

볼로 흘러내리는 눈물만은 어쩔수 없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원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마음으로 모든것을 다해오건만 한생 아버지라는 부름만은 줄수 없는 서글픔에 속으로 끝없이 용서를 빌며 살아왔다. 반쪽짜리 서글픈 사랑으로 아빠, 엄마의 옹근 사랑을 대신하겠다고 모지름을 써온 자신이였다. 그런 부족한 엄마를 철부지가 헤아려 오히려 애틋한 정으로 감싸주려 하였다. 그 갸륵한 마음이 타는듯 붉은 튜립 송이송이에 비껴 눈굽을 뜨끈하게 지졌다.

위선은 악중의 악이다, 그저 어질고 나약하면 속히우고 짓밟혀, 이걸 뼈에 새기고 무쇠쪽같이 의지를 벼리라, 열배, 스무배로 남을 압도하라. …

이렇게 매일 매 시각 자신을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아들애를 달구어온 림하영이였건만 누를길 없는 오열로 밤길도록 몸부림쳤었다.

잊혀지지 않는 그밤의 아픔이 오늘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 차라리 보내지 않았더라면…)

림하영은 마치도 자기가 아들애를 《침몰》이라는 무시무시한 공포속으로 떠민것 같아 옥죄여드는 가슴을 부여안고 와들와들 떨었다.

알릴듯말듯 울리는 짧은 호출음에 놀란 림하영은 손전화기에 불안스러운 눈길을 박았다. 아까부터 소식이 끊겼던 아들애에게서 다시 통보문이 날아온것이다.

— 살아서 돌ㅇ가ㄹ게. 사랑해요, 엄ㅁ

생의 마지막을 예감한 아들애가 힘겹게 써보냈을 미완성단문들의 마디마디에 흐르는 애정으로 림하영은 가슴이 미여져왔다.

《약한 소리 말랬잖아! 엄마 간다. 견뎌!》

림하영은 움켜쥔 손전화기에 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소리쳤다. 응답이 없었다. 그제야 방금 받은것이 통보문이였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발신마저 다시 실패이여서 맥이 스르르 풀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가. 시시껄렁한 소식들로

성가시게 이어지던 택시안의 방송이 별안간 전하는 놀라운 소식에 림하영은 귀를 의심하였다. 《<세월>호 승객 성과적으로 <전원 구조>, 사상 최대의 구조》라는 기적같은 소식이였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실날같은 기대에 소원을 매달며 림하영은 두손 마주 쥐고 간절히 빌었다.

(기적이여, 내 아들을 살려다오. 빈다!)

2

림하영은 옷깃새로 사정없이 스며드는 산산한 느낌에 진저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설은 바다가에 웅기중기 서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비로소 진도에 다달았음을 깨우쳐주었다.

주위는 소란하였다. 욕을 퍼붓고 흐느끼고 악을 쓰고 까무라치고… 망돌같이 묵직한것에 가슴이 지지눌린듯 숨이 콱 막히는 광경이였다.

아비규환의 분위기로 보아 《전원 구조》는

역시 오보였는가. 끔찍한 일이 터진게 확실하였다.

(정현인 수영 잘하는데… 살았을수 있어. 아니, 살아있을거야.)

림하영은 불길한 예감이 심술궂게 솟아날가봐 힘껏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간신히 용기를 내여 누구에게라 없이 조심조심 물었다.

《저— 구조된 사람들 어데 있어요? 아까 방송에서…》

한 중년남자가 시름이 가득한 얼굴을 반쯤 돌리며 몰풍스레 대꾸하였다.

《흥, 그깐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낱말)들 말을 믿소? 전탕 사기군들이요. 늙어빠진 배를 새것처럼 분칠하고 미욱하게 과적재하질 않나, 한명두 안 건지구 헛나발 불질 않나… 더러워서, 퉤—》

이때 새된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저길 봐요!》

경비정에서 내린 한무리의 사람들이 해양경찰들에게 이끌려가고있었다.

란간을 부여잡고 설분을 토하던 가족들은 일시에 그들쪽으로 와 달려갔다. 불상사에 접하고 비상해진 륙감으로 저마끔 따지고들었다.

《어떻게들 나온거예요?》

《웃층까진 물이 안 찼을거라던데… 우리 애들 살았겠죠?》

《저 배 아직 괜찮은거죠?》

중구난방으로 물어대는 서슬에 기가 질렸는지 일체 대답이 없었다.

빠른 눈길들이 구조자들의 옷차림을 훑어내렸다.

《혹시… 선원들 아니야?》

누군가 불쑥 던진 추측의 말에 눈에 뜨이게 허둥거리는 구조자들의 거동과 눈빛이 수상한 느낌을 한층 더 불러일으켰다.

《아아, 이러지 마십시오. 물러들 서시오.》

바빠난 해양경찰이 인파를 헤가르며 소리소리 지르는데 구조자들은 까투리마냥 틀어박은 고개를 도무지 들념을 못하였다.

《맞죠, 저들 선원들이지요?》

이번엔 한 녀인이 경찰을 붙들고 따지였다.

경찰은 대답을 못하고 눈길을 피할뿐이였다.

폭발적인 분노와 참담한 심경이 승선자가족들의 가슴가슴을 휩쓸었다.

《어디 그럴수 있어? 애들은 어찌라고…》

《선장도 여기 있냐? 나서라!》

《늬들도 사람이야? 이 개같은것들아!》

《내 새끼 살려내라, 살려내!》

주먹을 부르쥐고 분격을 터치던 가족들은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무섭게 달려들었다. 두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쩔쩔매는 구조자이건, 막아서는 경찰이건 관계치 않았다. 멱살이며 옷섶을 탈아쥐고 울며불며 욕을 퍼부었다.

증강된 해양경찰들이 가까스로 가족들을 떼여내였다. 구조자일행은 서둘러 꽁지를 사렸다.

모자며 견장, 천쪼박이 너저분한 부두바닥에 퍼더버리고 앉은 가족들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경주야—》

《은지언니야ㅡ》

《수진이, 이 자식아ㅡ》

속수무책의 안타까움으로 애타하는 그들의 곡성에 팽목항은 금시 박산날것만 같았다.

공포는 추위를 몰아왔다. 림하영은 온몸에 엄습하는 랭기로 어깨를 부르르 떨었다. 억이 막히면 울음조차 선뜻 나오지 않는 모양인가. 림하영은 헉ㅡ 하고 숨을 삼키고나서 피덩이뱉듯 겨우 토막토막 말을 내였다.

《이렇게 추운데 저 물속은… 정현이… 얼마나 추울가.》

막막한 마음에 림하영은 바다 멀리로 눈을 주었다. 잠풍한 날씨의 덕으로 바다속으로 각일각 잠겨드는 거구의 《세월》호가 우렷이 보여왔다.

(저 배다. 내 아들이 지금 저안에 있어.)

앞뒤를 분간키 어려워진 림하영은 다짜고짜 바다에 뛰여들었다. 얼음같은 바다물을 밀어제끼며 막 앞으로 나가려는데 주위에서 야단이 일었다. 첨벙첨벙 뒤를 좇아오는 사람들이 있었

다. 왁살스러운 손길들에 잡혀 끌려나와보니 해양경찰들이였다.

《놔요! 아직 건질수 있잖아. 누가 날 건지래요? 애들이나 건져요!》

막무가내로 악을 쓰는 림하영을 말리며 가족들까지 증을 냈다.

《혼자서 뭘 어쩐다는거요? 그러지 않아두 속타는데 좀 자중하오.》

아들애때문에 생을 이어오고 아들애로 하여 강해진 림하영이였다. 어쩌면 아들애를 다시 못볼수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아뜩하였다. 생의 의미도, 목적도, 기력도 감감 찾을길 없었다. 림하영은 이 시각 불안과 허탈의 미궁속으로 빠져드는 자신이 그지없이 미웠다.

(그럴수 없어, 그럴수 없어.)

림하영은 지푸래기라도 잡고싶은 허망한 기대를 쉬이 버릴수 없었다. 안깐힘을 쓰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애바른 마음에 허겁지겁 뛰여다녔다. 잠수부를 찾아서 대느라 갖은 신고를 다

하였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선지 민간인잠수부의 구조활동이 허락되지 않았다. 《세월》호 가까이로 실어다 달라고 손이야 발이야 사정도 하였다. 그것도 헛수고였다. 위험하다는 미명아래 거절당하고말았다.

림하영은 기슭에 퍼더버리고 앉아 마른가슴을 치고 또 쳤다.

(어쩌면 좋담. 내가 과연 무엇을 할수 있나?)

사랑하는 아들을 살려낼수만 있다면 당장 독실한 신자도 되고 서슴을 그 무엇도 없으련만 그저 안타깝기만 하였다. 악을 쓰며 지켜온 행복이 이렇게도 산산쪼각날수 있을가.

이때 귀익은 음성이 들렸다.

《진정들 하세요. 인츰 소식이 있을거래두요.》

승선자가족들에게 붙들린 해양경찰청의 한 정복쟁이가 사정조로 하는 말이였다.

갱핏한 그 모습이 낯익었다. 다시 기운을 돌이켜 한달음에 달려간 림하영은 그의 소매에 매달렸다.

짜증기어린 얼굴이 홱 돌려지다가 두눈에서 펑끗 반가움의 불꽃을 튕겼다.

《어, 하영이!》

가물에 단비같은 고향녀인의 출현에 정복쟁이는 정도이상으로 환성을 올렸다. 진땀을 뽑던 성화에서 벗어나게 되였다는 안도감에서였다. 주변에서들 쳐다보며 어정쩡해있는 기회에 그는 림하영을 한켠구석으로 슬쩍 이끌었다.

회포를 풀려고 싱글대던 그는 림하영의 초조한 눈빛에서 짐작되는바가 있었는지 끙끙 갑자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 그럼… 정현이도?》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재확인시키는 그의 말에 림하영은 완강히 도리머리를 흔들고 총알같이 야무진 말씨로 캐물었다.

《지금 뭐하는거죠? 도대체 구조해요, 안해요?》

《글쎄, 한대두.》

《어디 하나나 보여요?》

《이럴 땐 군대건 경찰이건 민간인이건 몽땅 동원돼야 할텐데…》

《기막혀. 보도매체가 늘쌍 자랑하던 그 많은 최신형함선, 직승기 다 뭘 해요?》

《흠흠, 우리 힘에야 한계가 있잖나. 상부에 련락은 했는데 딱히 지시가 없구만.》

《세상에… 숱한 애들의 목숨을 놓고 이럴수 있어요?》

《글쎄, 낸들 어쩌라오. 한갖 말직인데. 청와대의 실권자라면 몰라도…》

림하영의 머리끝으로 치솟던 화가 청와대라는 그 한마디에 다소 가라앉았다. 뭔가 할수 있다는 희망이 번개치듯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한 녀인의 모습을 상기시켰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담. 박근혜…)

림하영의 눈앞으로 청와대와 인연이 맺어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두해전 겨울이였다. 림하영은 저물녘에야 사람들로 복작복작 끓는 시장에 들어섰다. 실력판정

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아들애를 푸짐한 음식상으로 축하해주려고 서둘렀건만 두루 일이 생겨 그만 늦어진 걸음이였다. 그가 바삐 둘러보며 이것저것 골라 사느라고 여념이 없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와야— 하는 함성이 터졌다.

또 그렇고그런 시장안의 소요이겠거니 하고 무심히 대하려던 림하영은 차츰 가까워오는 별스레 빨간 목도리들에 눈길이 끌렸다. 그들의 중심에 한 녀인이 웃음을 함뿍 머금고 서있었다.

(저 녀자는 박근혜? …)

그랬다. 《대통령》선거유세에 나선 특이한 경력의 후보자, 박근혜네 행차였다.

(녀자가, 그것두 황혼나이에 무슨… 괜한짓들이야.)

때가 되면 늘 있던 후보자들의 유세요, 지지표구걸로 제가끔 화려하게 늘어놓는 공약따위에 별로 흥심이 없는 림하영인지라 덤덤히 저자구럭을 추스르며 셈을 놓았다.

(들어보나마나 뻔해. 갈고같은 말치레겠지.)

무시해버리기로 작정하였으나 청각이 예민한 직업적특성이 그 결심에 훼방을 놓았다. 박근혜 후보자가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말이 얼마쯤 사이를 둔 림하영에게도 똑똑히 들렸다.

《아이고, 이런 추운 날 늙은이가 늦도록 욕 보시네요.》

각근한 정이 철철 넘치는 후보자의 말은 기존 정치인들의 《세련된》 틀에서 벗어나 소박함이 다분히 묻어나는 이례적인것이였다. 림하영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였다. 걸음을 멈추고 건너다보니 후보자가 어떤 할머니를 마주하고있었다.

《댁엔 누가 있죠? … 네에ㅡ 일곱살 난 손녀 그리구 장애자 아들. 아들은 어쩌다… 저런, 교통사고로요. 며느리도 그때 잃고. 쯧쯧, 그래서 이렇게…》

시장소음때문에 허리를 꺾고 할머니의 말에 귀를 강구며 후보자는 연송 혀를 찼다.

《엄마없는 어린것이랑 돌볼래 정말… 이 손 좀 봐요, 얼마나 험한가.》

할머니의 두손을 어루쓸며 동행자들을 둘러보는 후보자의 실눈에 눈물이 괴여올라 번뜩이였다.

각박한 세상살이시름에 무데기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이 꿈같은 인정에 실룩실룩 떨었다.

《손이야 뭐라우. 어휴, 그것들 걱정에 내 죽지두 못하구…》

《무슨 말씀을… 오래오래 앉아계셔야죠. 근심말아요. 고생끝에 락이라고 이제 잘살게 돼요. 로인님들께 복지년금도 넉넉히 해결해드리고 반값등록금도 실시하고 녀성이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약자들을 보살펴주는 세상을 저희들이 꼭 세울거예요.》

림하영은 귀가 솔깃해졌다. 함부로 터놓지 못할 마음속 고민을 안고 모진 세파를 헤쳐가며 가정을 유지하고있는 림하영과 이제 몇년후이면 등록금으로 아찔하게 높은 대학문앞에 서야 할 아들애에게 있어서도 사활적인 문제들이 아닐수 없었다. 역시 녀성이여서 저렇듯 자심하고 녀성

들의 아픈 구석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가싶으면서 한가닥 기대가 움터났다.

할머니는 다른 말을 못 찾고 제 설음에 쿨쩍이는데 곁의 젊은 녀인이 다우쳐 물었다. 자그마한 몸집이며 또릿또릿한 음성으로 보아 정현의 짝패인 경주네 엄마같았다.

《그 말 믿어두 될가요?》

의문과 기대가 엇갈린 무수한 눈길들을 받으며 후보자의 대답이 자신있게 울렸다.

《그럼요. 생명과 안전은 국민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죠.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다면 경제발전이란 아무 의미도 없죠. 로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겁니다. 그가 누구든 기초적인 삶을 꾸려나갈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믿어주세요. 제 반드시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여러분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

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아무렴, 더 이를데있겠소.》

박근혜는 주위에 빽빽이 몰켜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겐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저의 가족이고 여러분모두의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리유입니다. 깨끗하고 바른 정치, 여러분과 아픔을 함께 하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삽시에 정적이 온 장안을 휩쓸었다.

선거유세라기보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남다른 곡절속에 살아온 녀인의 감동적인 토로이여서인가. 그도 그렇지만 《국민을 가족삼아 아픔을 함께 하는 바른 정치로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후보자의 말이 사람들의 금선을 흔들어놓았기때문이였다.

행복!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다. 허나 쉬이 이

룰수 없어 항용 장미빛공상으로 치부한다. 하다면 허황한 꿈같이 여겨왔던 그 행복이 지금 나에게로 오고있는것 아닌가.

고개를 접고 감격에 젖어 묵묵히 서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열기로 번뜩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졌다. 싸구려 소리와 가격을 흥정하는 실랑이소리들, 불신과 회의와 반신반의가 가뭇 사라진 시장안에 희망과 기대의 봄물결이 출렁이였다.

사르르 마음을 녹이는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던 림하영은 박수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잠시 잊었던 습관적인 불신과 의심이 머리를 추켜들었다. 박수를 칠가 말가 망설이는 림하영을 뜻밖의 탄성이 불러세웠다.

《이게 누구죠? 하영씨 아니예요?》

후보자가 알은체 반색하며 다가왔다.

《반갑네요. 화면에서랑 낯익혔어요. 하영씨 팬들이 굉장하다죠? 요즘 화보도 꽤 떠들썩하던데요.》

떨떠름해서 그를 마주보던 림하영은 그제야 까닭을 알고 어설프게 웃음을 내비쳤다. 그무렵 림하영의 이모저모를 시시콜콜 소개한 기사가 화보에 실려 대중의 야릇한 관심속에 녀가수의 인기를 보태주고있었던것이다.

《하영씨의 노래나 연기도 멋져요. 하지만 그보다는 보란듯이 일떠서는 기개 참 마음에 들었어요. 혼자 아들애를 키우느라 고생많겠어요.》

스스럼없이 팔을 끼면서 남들이 들을세라 소곤소곤 가정사를 관심해주는 박근혜앞에서 림하영은 그리도 당당하던 자신을 잃고 몸가눔이 어색해졌다.

《아들애가 열너덧살이라던것 같은데 아마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에 다녀요. 오늘 실력판정에서 2등을 했다나봐요.》

평소에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던 림하영이였다. 헌데 방금전의 자신의 긴 대답에는 자랑기가 다분하다. 림하영은 절로 놀라움이 들었다.

《오— 그러니까 축하연준비를 위한 걸음이겠네요.》

림하영은 뭐라 대꾸를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였다. 순간에 가슴이 쩌릿하였다. 지금껏 쌓아온 얼음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것을 느꼈다. 아득한 시절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인간애가 림하영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온천인양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이럴수가…)

꼭 죄였던 마음속 탕개가 남의 말 한마디에 이렇듯 쉽사리 풀어지고 리성을 앞지른 감정에 목이 메여오기는 난생처음이였다.

현란한 조명, 각이한 목청들의 미칠듯 한 호응, 우뢰같은 박수갈채, 대서특필의 찬사…

얼핏 보면 더할나위 없는 영광의 절정이고 멋들어진 삶인듯싶으나 그속엔 공허뿐이였다. 자신의 아픔을 남의 아픈 사연으로 위로받고싶은 사람들, 고된 삶이나 권태에 지쳐난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기분전환의 마당이기도 한 곳에서 림

하영은 한갖 생동한 인형에 불과하였다.

실컷 속풀이를 하고난 뒤엔 누구 하나 림하영을 돌아다보려 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술좌석이나 마실방 같은데서 솜씨있는 입부리들에 림하영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이렇게저렇게 각색되는것이 전부였다. 무대우의 인생이 감수해야 할 숙명이랄가.

무릇 녀인들은 리성보다 감성이 더 주도적인것으로 하여 속썩은 고충이 류다르다. 그릇도 차면 넘친다고 녀인네 작은 가슴이 비좁도록 들어찬 울분은 이리저리하게 흘러나오기마련이다. 하소연으로, 눈물로, 행악으로 제나름의 표현방식을 택하여 마음속 고충을 덜고 다시 채워넣으며 힘에 부친 생을 지탱해가는 녀인들이다. 허나 걸음걸음 만인의 각이한 눈초리속에 놓이는 녀배우의 경우 조명밖에서의 감정표현은 절대금물이였다. 저도 모르게 떨군 눈물 한방울이 추문의 온상으로 되여 조소나 비난과 바뀌운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림하영은 고독에 속

울음을 삼키면서 관객의 열광에 미소의 답례를 보냈다.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설음과 진정을 터놓을길 없는 무정하고 랭혹한 세계를 씁쓸히 관망하는것이 어느덧 습벽으로 굳어졌다. 처절히 배반당하고 밟히운 한으로 마음의 울타리를 높직이 두른채 지금껏 아들을 내놓고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살아온 림하영이였다.

가슴이 후더워났다. 박근혜의 《자상한 인정》이 그지없이 고마웠다. 누구도 모르는 내심까지 들여다보는 《혜안》에 림하영은 감동되였다.

불현듯 닥친 오아시스는 정에 주려 초들초들 마른 림하영의 속을 흠뻑 적시며 거침없이 흘러들었다.

《일전에 난 이런 글을 쓴적 있답니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희망을 현실로 만들 의지가 없다면 살 멋이 있나요. 나약한 인간을 난 질색한답니다. 당하기만 하는게 녀자일가요? 하영씬 어머니니 더 강하죠.》

박근혜는 나직한 음성으로 림하영을 고무하였다.

뭉클하는 격정에 림하영은 눈굽이 찡해왔다.

선거전야라 바쁜 와중에도 이웃아주머니같은 친절로 하바닥인생들의 사정을 차근차근 헤아리고 친언니처럼 살뜰히 림하영의 멍진 마음까지 다독여주고도 박근혜는 그들과의 헤여짐을 아쉬워하며 몇번이고 돌아서서 작별의 손짓을 보냈다.

서운한 마음에 그를 바래우고 섰던 림하영은 의아해졌다. 멀어져가던 박근혜가 웬 일인지 급기야 발을 돌려 마주 왔기때문이다.

온 얼굴에 활짝 피운 웃음으로 실눈이 된 박근혜가 림하영의 손에 가만히 뭔가 쥐여주었다. 손전화번호가 적힌 금빛의 명함장이였다.

《전화해요. 지기들한테만 주는 번호예요.》

박근혜는 한눈을 끔벅하였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뿐인걸요. 승자에겐 죄를 묻지 않구요. 이겨야 현자랍니다. 수단과 방

법이 따로 없죠. 화이팅!》

박근혜는 주먹을 번쩍 들어올려보이고나서 자리를 떴다.

후보자의 명쾌한 행동에 현혹된 림하영은 그가 남긴 말을 음미해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였다. 《화이팅!》 하는 묘한 여운은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녀배우를 무아경에 잠기게 하였다.

집에 돌아와 콤퓨터에 마주앉은 림하영은 망자료들을 파고들었다. 위선의 극치일따름이라고 결론짓고 외면해온 정치를 최대의 관심사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에 맹렬히 진행되는 여론몰이는 림하영을 격분케 하였다. 아픈 과거를 안고있는 박근혜에게 험담을 들씌우는 반대파들이 그지없이 미웠다. 진보라면 마땅히 국민생활의 진보를 위한 방책을 내놓아야 할게 아닌가. 뜬소리나 늘어놓고 뒤자락을 잡아당기는 나부랭이들에게 년로한 녀성의 몸으로 맞

서나선 박근혜가 자못 돋보였다.

그래도 어린 아들애한테나마 의지할수 있는 자신과는 대비조차 할수 없으리만큼 생활적으로 몹시 외로울 후보, 유난스럽게 곡절많은 인생행로를 헤쳐와서 그런지 동정심이 각별하고 정찬 말도 스스럼없이 건네는 그에게 쏠리는 자신을 제어할수 없었다. 랭담의 면사포를 쓰고 살아온 자신과 《얼음공주》라는 서글픈 혹평에 시달리는 그가 별스레 일맥상통해보였다. 림하영은 퍽 가엾었다.

한편 박근혜를 칭하는 색다른 부름에 흐뭇하였다.

《준비된 녀성대통령》!

외울수록 귀에 쏙 배기고 마음에 친근하게 안겨드는 부름이였다.

《대통령》선거라는 최고의 격전에 나선 박근혜, 그는 녀성후보자이다. 인구의 반수이상인 녀인들, 가정의 멍에를 떠메고 바등바등 애를 쓰는 우리네의 하소연을 들어줄 준비가 되

여있고 그 고충을 풀어줄 방책이 준비되여있는 녀성정치가!

누구보다 먼저 뭇녀인들의 아픔을 웃음으로 달래주려 마음쓰는 저 박근혜야말로 적임자가 아닐가. 동병상련이라고 녀인의 고뇌와 슬픔과 정을 녀인이 아니고서야 어찌 다 헤아리랴.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희망의 봄물결이 늠실늠실 굼닐며 가슴팍을 슬쩍슬쩍 건드렸다.

그래, 그의 당선만이 녀인의 수난사에 종지부를 찍을 래일을 안아올것이다. 오직 그만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수난에 신음하고 온갖 사회적 불평등에 서러워하는 이 땅의 녀인들의 눈물을 닦아줄수 있으며 이 땅의 어머니들이 자나깨나 바라고바라던 세상,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을 열어놓으리라. …

림하영은 이런 확신이 생겼다.

일단 결심을 굳히면 행동에서 주저라는것을

모르는 림하영이였다. 밤새껏 콤퓨터건반을 두들겨 박근혜의 당선이 이 땅우에 가져올 래일을 격찬하는 글을 써서 망에 올렸다. 시장에서 박근혜의 선거유세에 함께 감복한 경주 엄마와 더불어 학부모들에게 선동하였다. 동료예술인들을 부추겼다. 박근혜의 열성응원자로 무대우에 뛰여올라 노래로 광장을 들썩하게 휘저으며 1인당 열명이상의 지지자를 얻어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랭돌에서 열화로 돌변한 인기가수의 적극적인 지지선동은 박근혜를 권력의 절정에 올려세우는데 적지 않은 도움으로 되였다.

《대통령》취임식이요, 광화문광장에서의 《복주머니개봉행사》요, 기념공연이요 하는 끊임없는 행사들에 박근혜는 림하영을 잊지 않고 불러주었다.

림하영의 노래에 박수도 남먼저 쳐주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 화려한 꽃다발과 함께 감사의 쪽지까지 전해왔다.

《후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날 찾아요. 화이팅!》

림하영은 박근혜가 던진 낱말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뜯어보았다.

《화이팅!》, 은미또래의 경박한 젊은이들이 큰 의미없이 작별인사삼는 겉치레쯤으로 같잖게 치부해온 말이다. 잘 싸우자, 힘내라는 격려의 말로 체육경기장에서 먼저 울려나왔다던지. 지금은 선수들과 응원자들의 범위를 벗어나 사방에 람발되였다. 생활의 틈새들에서 심심치 않게 새여나오는 이 외래어가 대양건너 코큰 인간들의 노릿한 체취를 마주한것처럼 림하영의 비위에 거슬린탓에 되도록 귀에 담지 않으려고 해왔다.

이상도 하였다. 같은 말인데 이다지 느낌이 다를수가 있는가. 박근혜를 대할적마다 그가 늘 곱씹는 《화이팅!》이라는 이 말이 여름날 마른 목보다 타는 속을 먼저 적셔주는 물소리처럼 그렇듯 반가웁고 상쾌하고 귀맛좋게 들리는건 어

인 일일가. 아마도 혈육같이 살갑게 부어준 관심이 내가 일껏 지탱해온 차거운 리성에 파렬구를 내고 여린 감성을 휘저으며 마음속깊이에 쩌릿하게 와닿은탓 아닐가. …

림하영은 지친 몸과 지친 마음을 박근혜에게 기대고싶었다. 리유없이 무작정 그를 믿고싶어졌다.

하여 첫사랑의 배반으로 뼈저린 아픔을 당한 뒤 누구의 말도 곧이듣지 않아온 림하영이였지만 박근혜의 《선의》만은 진정 티끌만치도 믿어의심치 않았다. 다시는 품을수 없는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던 인간에 대한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게 해주고 생의 희열을 되찾게 해준 박근혜가 은사처럼 생각되였던것이다.

(그래, 그만이 우리 정현일 살릴수 있어.)

림하영은 구원의 동아줄을 찾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더듬거리며 박근혜의 손전화번호를 찾아 눌렀다.

3

푸르른 애잎들이 한들대는 밖은 엄연히 봄이였건만 진도체육관안은 속수무책의 기다림속에 피가 얼어들고 심장이 과다드는 한겨울이였다.

실종자가족들로 붐비여서인가. 너렁청한 체육관안의 공기가 희박하게만 느껴졌다. 림하영은 숨막히는 긴장과 초조감으로 모대기며 벌써 몇시간째 손전화기에 매달려있었다.

(왜 응답이 없을가? 그럼 통보문이라도…)

림하영은 부지런히 손가락을 놀렸다.

— 각하, 배 좀 건져줘요. 애들이 죽어가요.
　　진도에서, 림하영.

다급한 마음에 자꾸 헛짚으며 겨우 몇자 써넣은 통보문이 날아갔다. 역시 대답은 없었다.

림하영은 속이 답답해왔다. 숨길이 막혀들어 헉헉하며 목깃을 쥐여뜯었다.

(예가 어딘가? 난 대체 어데 있는거야?!)

수천수만리밖과의 소통도 가능한 첨단의 시대에 림하영은 고립무원한 무인도에 버려진것 같아 겁이 났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통 소식이 없었다.

처지공통성으로 념려해준 주변의 가냘픈 인심으로 림하영에게도 깔개 하나가 차례졌다. 널직하고 든든한 체육관바닥에 깔개를 펴고 앉았건만 창파우의 쪽배에 실린듯 림하영의 온몸은 불안으로 후들후들하였다. 정현이네 참사소식을 들은 때부터 자제와 랭정의 닻이 들리워 평형을 잃어버린 림하영이였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다는 집요함에 몰리워 림하영은 손전화기를 놓지 않았다. 주소록을 발칵 뒤지여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번호를 찾아내였다. 마침이라싶어 한번, 또 한번 응답없는 상대를 찾아 그냥 눌러대였다.

참으로 얄궂은게 인간의 심리이런가. 불행이 닥친 순간에조차 행운을 비는것을 단순히 무지의 희롱으로 봐야 하겠는지. 기다림의 이 시각

림하영은 공상의 위안속에 잠겨들었다.

하늘이 비좁게 떠도는 직승기들, 바다를 메운 함정들과 잠수부들, 군복차림을 한 박근혜《대통령》의 민활하고 용의주도한 륙해공군 총지휘로 기적같이 수면우로 둥실 떠오르는 《세월》호, 구조된 애들과 그 가족들의 목메인 환성으로 와작 끓어번지는 팽목항, 얼싸안은 정현이와 림하영을 바라보며 수호신인양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대통령》…

한창 부풀리던 상상을 깨치며 뜨직한 응대가 있었다.

《누구신지요?》

《림하영이라고 저― 가수인데요.》

《아, 림하영씨! 전번 선거때 면식을 익혔지요. 각하의 감사편지도 제가…》

피뜩 희멀쑥하고 기름한 얼굴이 생각났다. 능글맞게 올리훑고 내리훑던 끈끈한 그 눈길이 살갗우로 스멀스멀 기여가는 털벌레같아 오싹 소름이 끼치던 사내였다. 달갑지 않은 회억으

로 눈살이 찌프려졌으나 별수 없었다. 림하영은 호―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나마 알만한 상대이여서 다행이였다.

림하영은 촉박한김에 수인사는 생략한채 서둘러 용건을 털어놓았다.

《각하가 응답하지 않아서… <세월>호 아시죠? 우리 애가 거기에… 급해요. 살려줘요!》

림하영은 허둥거려지는 마음에 두서없이 말하다가 비명같이 끝을 맺었다.

《…》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말이 들려요?》

전화가 끊어졌는가 하여 림하영은 연거퍼 응답자를 불렀다.

《듣죠, 듣습니다. 헌데 각하의 행처를 몰라놔서…》

림하영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개인생활의 비밀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좌우간 서면보고랑 수차 올렸으니 대책이 있을겁

니다. 기다려야지요.

그건 그렇고, 전날 TV에서 보니 하영씨 미모 여전하더라구요.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시죠. 함께 식사나 한끼 나눴으면 합니다.》

(다들 제정신들인가.)

림하영은 엄청난 참사를 너무도 심상하게 대하며 왕청같이 식사타령을 하는 비서실의 사내도, 행처불명의 《대통령》도 못내 원망스러웠다.

말을 잊은 림하영의 심리가 그제야 짚이웠던지 비서실의 사내가 제켠에서 쌀쌀해지며 먼저 통화를 매듭지었다.

《아하— 그럼, 제 좀 바빠서…》

림하영은 아연하였다.

(이보다 바쁜 일이 어디에 있담.)

수백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기는 참사가 일어난지 여러 시간이 흐르도록 《대통령》이 행방불명이라는 가혹한 현실에 림하영은 망연자실하였다.

《기다리라? 과연 언제까지… 이를 어쩌나!》

전광판에 표시되는 구조인원수는 시간마다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승선자 가족들의 신경줄을 팽팽하게 하였다. 정부의 종합적인 지휘가 없이 제뿔내기의 형식뿐인 구조가 가족모두의 간을 졸였다.

피를 말리는 순간순간이 이어지는 속에 림하영은 잠도, 끼니도, 눈물도 잊었다. 애면글면 뛰여다닌 끝에 어렵게 민간잠수부를 댔건만 헛수고였다. 무슨 까닭에선지 승인이 되지 않았다. 자기라도 배를 얻어타고 《세월》호 가까이로 가보려고 했으나 그마저 성사되지 않았다. 이제는 아들애가 구원의 시각까지 견뎌주었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만 남아있었다.

뼈를 깎고 심장을 갉는 밤파도소리에 흐느껴 울며 림하영은 비닐박막을 걸써 두른채 장밤 부두가에 있었다. 아들애가 수학려행을 떠나던 그 시각이 이밤이런듯 눈앞에 방불하게 안겨왔다.

떠나기 전날 미흡한 점이 뭘가 골똘히 새겨보

던 끝에 림하영은 요새 류행이라는 탄력있는 운동신을 사들고 나는듯이 집에 들어섰다.

그런데 신발만은 락제였다. 앞코숭이가 지내 빡빡하게 들어찼던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키는 대견스레 여겨보면서도 어느새 움쭉 자란 아들애의 발을 미처 가늠 못한 림하영이였다.

《하루만 더 있으면 바꿔올텐데…》

《엄마, 아쉬워 말어. 돌많은 제주도에서 새신 다 닳으면 어쩌지?》

능청스레 정색해서 묻는 정현이를 림하영은 밉지 않게 흘겨보았다.

《애두, 꼬마인가? 아직 엄마엄마하면서…》

속상한김에 던지는 어머니의 핀잔을 못 들은척 하며 정현이 제법 을러멨다.

《오는 일요일, 즉 내 생일날 맞춤한 신으로 무조건 봉창해줘요. 값은 제주도사진들로 치를게요, 하하…》

정현은 어머니의 어깨우에 친구처럼 한팔을 척 걸치고 서서 유쾌히 웃어제꼈다. 결사람까

지 씻은듯 기분이 맑아지게 하는 티없는 웃음이였다.

그바람에 만단시름이 다 날아나 흔연히 아들애의 먼길을 바래운 림하영이다.

(운동신을 구실삼아 애당초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걸.)

터무니없는 후회로도, 자책으로도 아픈 마음이 덜어지지 않았다.

뒤날 기쁜 추억으로 될것이라고 서운한대로 접어두었던 그 모든것이 새록새록 떠오르며 림하영의 속을 피나게 허벼대였다.

기나긴 악몽같은 하루가 지났다.

— 정현아, 끝까지 버텨주렴.

— 엄마 혼자 못살아. 넌 나쁜 자식이야.

— 살아오겠다고 했잖아. 어서 돌아와줘.

림하영이 응답없는 아들애를 찾아 전송실패를 거듭하는 통보문을 연방 날리며 발목이 시도록 팽목항을 오락가락하는데 문득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들렸다.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왔다는것이다.

(어째 이제야 오는거야?!)

곁이 나서 두주먹을 부르쥐고 허둥지둥 달려간 림하영은 마침 체육관 문어귀를 빠져나오는 박근혜일행과 맞다들었다.

《가면 안돼요!》

사색이 된 림하영이 손을 뻗치려는 순간 박근혜는 제 먼저 한손을 쳐들어 입막음을 하였다.

《가족들 요구대로 다 해주겠으니 기다려요.》

그러고는 더 어째볼 사이없이 몸을 삑 돌리더니 일행에 에워싸인채 총총히 가버렸다.

(어쩌면… 너무해요, 너무해!)

서운함과 분격이 울음이 되여 꾸역꾸역 목구멍을 올려밀었다. 허전해오는 마음을 달래며 림하영은 추근추근 감겨드는 불안을 털어버리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래, 구조가 바쁘지. 애초 그것때문에 만나려고 했잖아. 인츰 소식이 있을거야.)

그러나 종무소식이였다. 흉흉한 소리만이 끊길

새없이 들려왔다. 어데 갔었는지 끔짝않다가 침몰 하루후에야 불쑥 나타난 《대통령》의 행적이 의문스럽다느니,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구하기 힘드냐 하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것같은 소리나 늘어놓던게 영 께름직하다느니…

기다리다 못해 림하영은 다시 손전화기를 부둥켜쥐고 씨름하였다. 사방에서 《국민과의 소통에 먹먹 불통인 대통령》이라 비난이 줄닿아도 림하영은 이를 부정하였다. 각별한 인연을 맺은 자신과는 꼭 통하리라 믿고싶었다. 그가 할수 있는것은 오직 이것뿐이여서 더 어쩔 도리가 없기도 하였다.

운명은 그를 모질게 희롱하였다. 불통, 불통의 련속이였다. 통보문마저 전송실패로 역시 불통을 알렸다.

(왜 받지 않아? 정녕 피하는걸가?)

선거때면 너나들이 호인이요, 선거후면 모른척 악인이 된다는 정치인 일반과 박근혜를 동렬에 놓기 싫은것이 림하영의 애바른 심정이였다.

경각에 이른 아들애의 목숨을 두고 더는 한가하게 기다리고있을수 없었다. 림하영은 재차 청와대 비서실을 찾았다.

몇차례의 호출에 따른 역시 굼뜬 대응에 림하영은 화가 끓어오르는것을 겨우 누잦히며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접니다. 림하영… 각하의 손전화번호 바뀌였어요?》

《원, 그럴리가…》

《그럼 왜죠?》

《…》

림하영은 울화를 터치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며 자존심을 집어던지고 사정하였다.

《한시가 급해요. 애들이 죽어가요. 제발, 제발 도와줘요.》

《성화네요. 각하가 처리할 중요한 업무가 어디 한두가지게요.》

림하영은 발밑으로 기가 몽땅 빠져나가는것같은 허탈감에 쓰러지지 않으려고 번디디고 서

서 완강히 부인하였다.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인명보다 중한게 어디 있어요? 박대통령은 절대로 <세월>호를 외면할수 없어요. 외면해선 안돼요.》

《아아, 댁의 사정이 딱하긴 해도 어쩌겠습니까. 섭섭한대로 알아 조처하세요.》

삽시에 엄엄한 태도로 변하며 그루를 박는 그의 말에 림하영은 울기가 올랐다.

《어쩌면 그리도 무정해요? 우리 애 하나만인줄 아세요? 숱한 애들이…》

《압니다, 알아요. 사실 말이지 대통령각하도 청와대가 결코 재난구조기구는 아니라고 했죠.》

《뭐요?!》

《그리구 침몰된지 언제게 아직 살아들 있겠냐는거구요. 뭐, 이왕 그렇게 된걸 어쩝니까. 죽은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구. 작은 일에 련련하면 큰일 못하죠. 대통령이 아닙니까. 각하도 무척 섭섭해하신답니다. 이일저일 안팎으로 바쁜 사정을 리해하려고조차 안한다구요. 사실 말이

지 세상엔 그런 사고가 비일비재한걸요.》

《사고요?! <세월>호참사가 사고라구요?! 그게… 그게 정말 대통령의 말인가요?》

쿵— 하는 충격에 비칠하며 림하영은 벽에 기대섰다. 실망이 아닌 절망이, 격분이 조수처럼 차올랐다.

통화는 이내 끊겼다. 애들이야 죽건말건 아랑곳않는 청와대것들의 비렬한 태도에 림하영은 치가 떨렸다.

(내가, 내가 누굴 믿었어? 저따위 악한들을…)

《…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앞에서 박근혜가 버젓이 한 말이였다.

《화이팅— 화이팅—》

그가 입버릇처럼 지르군 하던 낱말의 정체를 드디여 파악한 림하영은 머리를 싸쥐였다.

아, 그땐 내가 왜 새겨듣지 못했을가? 이기는덴 수단과 방법이 따로 없다는 그 궤변을 어째서 무심히 들어넘겼어?! 어떻게 그의 관념이 나

와 일치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착각을 했을가?

《강자》! 남보다 배의 노력으로 재주를 닦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나의 좌우명과 등치고 간빼먹는 식으로 남을 속여 물어메치는 《강자》가 되여야 한다는 저 야심가의 주장은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두고있는것인가.

《승자》! 그는 그때 이미 《피의 월계관》을 꿈꾼것이 분명하다. 취중에 진담이 나온다고 그가 선거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나에게 속심을 흘렸다. 그런데 여린 감성으로 리성의 눈이 흐려지고 귀가 멍멍해진 나는 그걸 흘려들었던것이다.

아, 끔찍하구나! 시장에서 보인 그 눈물의 리면에 하소연하는 평민들을 《벌레같은 약자》로 업신여기는 야지러운 조소가, 그들의 머리를 지르밟고 《강자》로 군림하여 무제한한 권세를 누릴 야심이 교묘히도 숨겨져있었구나.

그의 《화이팅!》은 힘없는 백성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였고 저 혼자만의 승리를 예고하는 자화자찬의 탄사였다. 《화이팅!》, 그 《화이팅!》

이 수백수천의 명줄을 끊어내치더라도 권세의 최고봉을 타고앉아 저 하나의 락을 향유하면 그만이라는 위선자의 배부른 타령이라는걸 난 어째서 미처 몰랐더냐?! 왜, 왜 몰랐어?! …

《악—》

림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싸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속히웠다는 비통함에 피를 끓이며 천방지축 내달린 림하영은 부두가에 다달았다. 하늘이 통채로 내려앉았던가, 땅이 뭉청 꺼졌던가. 먹물을 뿌린듯 캄캄한 앞을 이윽토록 노려보다가 풀썩 무릎을 꿇으며 림하영은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정현아, 엄마가 미련했어. 미안, 미안해—》

사정없이 흐르는 시간속에 구조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들이 림하영을 비롯한 실종자가족들앞에 연해연방 펼쳐졌다. 정부도 해운업체도 경찰도 한통속이였다. 실신하여 쓰러지는 실종자가족들의

곁에서 게걸스레 라면을 처먹고 사망자명단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장관》나리들의 무도한 《장관》이 붙는 불에 키질을 하였다. 애들 구조는 관심밖이였으나 그 가족들의 분노에 대해선 용케도 잊지 않고 주야 감시기로 살피며 얽어매려들었다. 웃물이 흐린데 아래물 맑을소냐. 《푸른 집의 녀주인》이 참사와 무관한 로파를 위로하는 명연기를 선보이니 뒤질세라 하수인들도 바께쯔물을 들쓴 잠수부를 출연시켜 《적극적인 구조》라는 희비극을 엮었다. 추태에 추태가 꼬리를 물며 살을 저미는 상실의 아픔에 소금을 뿌려대고 억장이 무너지는 통분함에 삿대질을 하였다.

바작바작 약이 오르고 애간장이 타들었어도 림하영의 마음속엔 금요일만이 있었다. 오늘도 금요일, 래일도 금요일… 기다림의 금요일은 오고가고 또 왔다.

박정한 이 땅에선 시간마저 이다지도 무정한 것인가.

첫날에는 살았을거라는 확신으로, 둘째날에는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셋째날에는 살아있을가 하는 의혹으로, 넷째날에는 시신만이라도 온전할 때 찾았으면 하는 애달픈 소원으로 마음의 지탱점은 한치한치 물러앉았다.

하루하루 마음이 변하는것이 림하영은 몹시 두려웠다. 포기할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것이 너무 싫었다. 왜 피해자가 마음을 접고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거냐고 항의도 해보았지만 관련자측의 어떤 위로도 고무도 없었다.

더우기 림하영이네를 악에 받치게 한것은 참사현장을 촬영하여 전광판에 제시한 한장의 사진이였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지름을 쓰며 여린 팔로, 의자로 선창을 때리는 애들의 모습이 어찌나 선명하게 찍혔던지 처음엔 비명도 올리지 못하고 온 장내가 얼어붙었다.

《저게… 뭐야?》

누군가의 신음같은 한마디에 비로소 잠겼던 목이 열려 악악 고함이 터졌다.

《못된 놈! 구경거린가? 사진을 찍었게.》

《그럴거면 왜 창문부터 활 깨뜨려주지 못해?!》

《저걸 보구두… 인간백정들!》

《왜 저걸 보여줘? 무엇때문에? 우리 숨이 붙어있는게 원쑤같으냐?!》

《누구 망치 없어요? 얼른 좀 줘요. 애들을, 애들을 구할테야!》

가까이에서 사진 찍을수는 있을망정 발버둥치는 애들을 위해 유리창을 깨뜨려주는 손은 없었다는 처절한 사실이 가족들의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았다.

림하영은 멍해 서있었다. 지난 시기 그 뜻을 다는 헤아리지 못한채 불렀던 어느 노래의 구절구절이 새겨지면서 가슴에 응어리로 맺혀왔다.

뻔히 보면서 잡을수가 없었던 손, 부딪치는 소리에서 비로소 우정도 사랑도 유리벽안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흐느끼는 유리벽속의 인생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앞에 림하영은 망연해졌다.

유리벽이다. 아무도 깨뜨리지 않는 이 슬픈

유리벽속에 정현이가 아니, 내가 있다. 위선의 무리들이 칸칸이 막아놓은 《갸륵한 보호벽》속에 우리모두가 억척으로 제각기 갇히웠다. 자본주의독소에 자주정신이 마비되여 굴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버리지만도 못한 삶에 쫓겨왔다. 인정의 갈증에 허덕이며 망치 하나 들 힘조차 없는 무맥한 존재들로 하나둘 숨져가고있는것이다. 치떨리는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을 체질화한 악의 사회가 이 무고한 주검들을 딛고서 《부유하고 문명한 고도성장사회》를 운운하며 《현란하게》 빛나고있는것이다.

순진한 넋을 유린하는 치사한 위선이 협잡에 협잡을 낳고 눈섭 한번 까딱않고 생명을 앗아가는 험악한 세상, 모른척 하며 방임하고 누구도 깨뜨려주려 하지 않는 두터운 리기의 유리벽이 몸도 마음도 갇아버린 숨막히는 악의 세상에 태여난것이 정현이, 너의 《죄》였구나. …

끝모르는 저주와 곡성으로 가득한 진도는 그야말로 지옥중의 생지옥이였다.

만장의 시선앞에서 애들을 끝까지 구조하겠노라 헛소리를 남긴 《대통령》은 종내 함흥차사가 돼버렸다. 끼니도 잠도 다 잊은 림하영에게 보여진 청와대일파의 행실은 어느것이나 다 추태였고 지독한 기만이였다.

쏴— 처절썩!

차거운 물갈기가 휘뿌려지는 부두가에서 림하영은 쓰디쓴 회억의 열물이 솟구치는것을 느꼈다.

화를 스스로 불러온것은 다름아닌 내가 아닌가. 어이없게도 나는 박근혜를 위해 《열광》의 노래를 불렀다. 수많은 유권자들을 불러일으켰지, 다름아닌 박근혜지지에로. 그럼 나도 위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청맹과니로 만들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히우고. 이 세상은 온통 거짓과 철면피의 세상이더냐. 속고 속히우는 사슬에 끝없이 얽히우는게 정녕 인간세상의 진면모란 말인가. 또다시 배신의 나락에 떨어질줄은…

림하영,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어. 가정이란 가져본적도 없고 아이 하나 낳아본적 없이 오로지 권력야망에만 충만되여있는 녀자아닌 독사가 떠벌이는 《가정행복》타령을 곧이듣다니. 마녀의 최면술에 말려들었던탓에, 식인종을 구원의 천사로 오판한탓에 내스스로 아들을 차디찬 몰인정의 바다속에 수장시켰다. …

《아— 정현아! 내가, 어리석은 이 엄마가 너를 죽이는구나.》

《국민행복》의 꿈을 이뤄낸것이 아니라 《국민》절망의 악몽을 이뤄낸 《대통령》아닌 악통령, 살릴수 있는 아이들을 거치장스럽다 내버려 죽인 악녀, 저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주검으로 산도 만들고 바다도 메울 희세의 살인마가 《대한민국》을 조종하고있는것이다.

거짓과 위선, 기만과 배신으로 얼크러진 악몽의 란무장, 썩어가는 사회가 들씌워준 치욕에 치를 떨며 림하영은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였다.

《이 땅에 선은 없다, 없어!》

휘둘리우는 뇌리로 울려오는 시구절이 있었다. 자원봉사 나왔던 어느 시인이 터친 분격이였다.

…
못한것이 아니라
안했다
할수 있음에도
안했다
하고있다고
다 구조됐다고
쉽게 구조될것이라고
왕왕대고있었다
구조할수 있는 시간 다 보내고
기적만을 이야기했던
《푸른 집》의 사람들
…

어느때건 어려우면 찾아오라고 다짐을 두던 박근혜의 목소리가 돌연 추악한 마녀의 너털웃음으로 바뀌며 하늘땅이 뒤집히는듯 한 혼미함속에 음산하게 울렸다.

《아— 악녀! 살인마—》

원통함이 극도에 달하고 무서운 허무에 기력을 빼긴 림하영은 더는 심신을 가누어내지 못하고 끝내 혼절하고말았다.

4

코끝이 알싸한 소독내와 수선거림에 림하영은 힘겹게 눈시울을 들어올렸다. 하얀 천정이며 벽체, 팔목에 꽂힌 주사바늘, 근심어린 눈초리들이 차례차례 망막에 비껴들었다.

《여긴?!》

울상을 한 은미가 제꺽 응대를 하였다.

《병원이예요. 마침 눈에 띄였기망정이지…》

림하영은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켰다.

《정현이, 정현이가 기다려.》

《같이 가요.》

말릴수 없는 형편인줄 깨달은 은미가 덤벼쳤다.

《넌 왜? 공연한 인정이야. 떨어져.》

은미는 도두룩한 입술을 감쳐물며 떼를 쓰듯 따라섰다.

림하영은 저으기 놀랐다. 여태 찌글써 보아온 은미가 이다지 마음씨 착한 처녀인줄은 미처 몰랐던것이다. 림하영은 쓸쓸한 마음에 서글피 한탄하였다.

(확실히 난 안목이 없어. 그러니 배신을 당할수밖에.)

림하영은 은미를 흘끔 쳐다보았다. 어쩐지 측은한 느낌이 들었다. 저렇게 여려서야… 석달 가물든 세상에 인정은 원천밭은 우물이다. 헤프게 퍼주다간 흙물 인다. 그럼 끝장이다. 목추긴 어제를 잊고 침뱉고들 가버릴테니까. 무서운 판이다.

림하영은 관례를 깨고 은미에게 타일렀다.

《너도 딱하다. 마음 여리면 난사야. 그야말

로 비극의 근원이지.》

전철을 밟지 말기를 바라는 내심의 충고였다.

경황없는 속에 힘겹게 조언을 주고난 림하영은 은미를 밀어내고 비척비척 문가로 향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은미는 제잡담 림하영을 부축하고 나섰다.

은미에게 있어서 림하영은 수수께끼의 녀인이였다. 무대우에선 온몸이 불덩어리로 활활 타며 혼을 빼는 숭배신이였고 무대밖에서는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뜩한 얼음산이였다. 언제 봐야 인사말도 없이 고개만 까딱하고 도도히 가버리군 하는 무례함에 기가 질렸다. 이제 보니 동정이 죽기보다 싫어 우정 랭기를 뿜은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림하영의 차분한 훈계가 황당하긴 하였으나 은미는 왠지 마음이 따스해짐을 느꼈다.

차안의 등받이에 쓰러지듯 몸을 실은 림하영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한동안의 침묵을 깨며 은미가 느닷없는 말을 던졌다.

《봤어요? 마스크를 끼고 침묵시위를 벌리는 사람들 말이예요.》

《?》

《<가만 있으라. 기다리라.> 이러며 <세월>호 애들을 내쳐둔걸 항의하죠. 짬만 있으면 <국민안전>을 떠들어대던것들이 결국 제 안전이 우선이였다는걸 모두앞에 증명했잖아요. 저마다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빼고 저마다 발뺌질하는 꼴이 넌더리난다, 더는 눈뜨고 못 보겠다 이거예요. 서울, 광주… 사방에서 <세월>호참사를 두고 굉장해요.》

워낙 촉기빠른 은미인지라 림하영의 어두운 안색을 살피고나서 입을 다물었다.

림하영은 풀길 없는 의문속에 차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다보았다.

눈결에 언듯언듯 스치는 노란 유채꽃이 사정없이 망막을 찔렀다. 흐드러지게 피여있는 봄꽃들이 야속하여 설음이 더 북받쳤다. 한두송이도 아니고 더미더미 널려져있는 모습이 꼭 정현

이네같아 뼈를 어이는 아픔을 자아냈다. 민들레도, 개나리도, 저 유채꽃까지도 별로 유표한 노란빛일색인 이 봄이 숨가쁘게 느껴졌다. 길우에 쏟아지는 봄날의 찬란한 해살마저 야속하기만 하였다.

차라리 비라도 퍼부어라. 어느 시에 있듯이 이런 날, 이런 때엔 내 마음의 우울을 부실 폭풍우라도 몰아쳤으면 후련하련만. 아니, 내 무슨 망녕인가. 정현이랑 아직 바다속에 있는데 폭풍우라니. 아들아, 이 엄마 죄된 망발 용서해. …

엇갈리는 모순에 시달리며 림하영은 눈물속에 용서를 빌었다.

쏴— 처절썩!

기슭을 들때리는 성난 파도에 오싹 한기가 몰려왔다. 따뜻한 계절이였건만 이 부두가에만 서면 매번 추위에 떠는 림하영이다. 차디찬 물속에 있을 아들애와 마음도 몸도 같이하는 까닭에서인지.

림하영은 우뜰 놀랐다. 파도소리가 신통히도

구원을 바라는 아들애의 목소리로 들려왔던것이다.

《살려줘! 살려줘!》

《흑—》

마른 울음이 벼려낸 창끝이런가. 가슴팍을 사정없이 찔러대는 아픔이 계속되였다.

얼마후에야 림하영은 힘없는 몸을 추스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손에손에 흰 꽃을 든 긴 행렬이 어디론가 흘러가고있었다.

류다른 이해 봄엔 꽃이 참 많기도 하다. 허나 생의 활력이 넘치는 환희의 꽃이 아니라 상실의 아픔이 하얗고 노랗게 피운 비애의 꽃들 천지였다.

《다들 분향소로 가네요.》

은미가 속삭이듯 하는 말이였다.

(실종자들의 일가겠지.)

은미의 손에 이끌려 림하영도 분향소에 들어섰다.

애도의 조화가 바다를 이루고 노오란 리봉들

이 빽빽이 들어선 속에서 각계각층의 남녀로소가 묵념하고있었다. 《세월》호 유가족만이 아니였다. 자원봉사자, 신부, 동료예술인들과 택시운전사도 있었다.

참사 당일 부두가에서 만났던 해양경찰청의 고향사람이 죄스러운 낯빛으로 다가와 뜨직뜨직 말을 꺼내였다.

《난 정복을 벗었다. 허수아비노릇도 이젠 끝이야. 선장이 살인자라며 발뺌질하고 업체 회장의 변사체를 제물로 삼은 대통령 아닌 대통령, 구조혼선이 해양경찰청의 잘못이라며 손쉽게 차던지는 정부 아닌 정부에 침을 뱉았지. 원망이 클줄은 알면서도 하영이한테, 애들한테 죄를 빌고싶었어.》

림하영은 묵묵히 서있었다. 이제 와서 죄를 빈다고 애들이 살아오랴.

림하영은 눈길을 돌려 천천히 추모인파를 더듬었다.

놀라웠다. 진정 아무 상관도 없는 남남들이 혈

육의 죽음인듯 가슴에 떠안고 곡을 하고있었다.

(대통령도 모른척 하는 죽음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심지어 정현이또래들까지 보였다. 그들이 한자 두자 정성껏 써놓은 조문의 글줄들이 림하영의 눈부리를 아프게 찔렀다.

《사랑하는 단원고등학교 친구들에게!

다음 생에는
배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장이 없는
  나라에서
침몰직전 3시간동안 너희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는 나라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부모님이
대통령에게 무릎꿇지 않아도 되는
  나라에 태여나
함께 공부하고 함께 수학려행 가자

<세월>호 친구들이 보고싶은 청소년일동》

억울한 친구들의 령혼을 달래며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어린 마음들이 너무도 갸륵하게 심중에 닿아 림하영은 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애들만도 못한 랭혈의 사기군들에 대한 타매로 모두 설설 끓었다. 비분을 못이겨 노성이 뿜어졌다.

《우연적인 재해라니, 무슨 당치않은 소리요? 이건 인재요. 필연적인 참사요. 계획된 학살이란 말이요.》

《애들한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해요.》

《가만 있으면 안돼요. 다음차렌 우리 애들이 되게요?》

림하영은 비로소 은미며 숱한 조객들의 마음을 헤아릴수 있었다. 오늘은 《세월》호가 래일은 또 무엇이 집집의 안녕을 깨칠지 뉘 알랴. 너나없이 심각한 고통과 좌절의 삶을 이어가는 속에 결코 남남일수 없는 이 땅의 힘없는 인생들이 아닌가.

무수한 초불들이 지켜선 제단우의 이름들을

더듬던 림하영은 아들의 이름을 발견하고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동이 터진듯 하염없는 눈물이 두볼을 적시며 줄줄이 쏟아졌다.

《정현이 엄마!》

며칠새에 머리에 흰서리가 앉은 젊은 녀인이 어푸러지듯 달려와 안기며 꺽꺽 흐느꼈다. 경주 엄마였다.

《우리 경주랑 애들 손가락이 몽땅… 몽땅 바스라졌다오. 얼마나 매달리고 얼마나 애타게 긁어댔으면 글쎄… 잠수부가 하는 말이… 배안에서 우리 경주가… 무얼 꽉 붙잡고있더라나. <집에 가자. 아빠, 엄마 보러 가자.>고 해서야 손을… 손을 놓더라겠지. 실컷 구경들이나 하고있다가 숨이 넘어간 다음에야 느릿느릿… 이게, 이게 무슨 구조요?! 부모들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 될 때까지 하나씩 건지고… 한참 지나서 또 한명, 잔인해도 세상에… 어쩌면, 어쩌면 이다지도 잔인할수가 있어요?!》

그래도 자식의 시신이나마 품에 안아본 경주엄마가 림하영은 견딜수 없을 정도로 부러웠다.

녀인의 통곡도 조객들의 노성도 점점 멀어져갔다.

(봄의 녀신같다던 이 엄말 혼자 두고 봄의 요정같던 우리 정현인 정녕 가버렸나.)

《엄마는 봄별, 난 봄바람!》 하며 깔깔대던 아들애의 웃음소리가 귀속을 꽉 채우며 림하영의 가슴을 허비였다.

자연의 봄은 한시절이다. 하지만 자기들 모자의 봄만은 사계절 내내 무한한 정속에 화창할것으로 림하영은 굳게 믿고있었다.

그런데 불시에 그 봄이 가버렸다. 무정하게도 아득한 저 멀리로 사라졌다. 때아닌 찬서리에 꽃망울채 떨어지고 싱싱하던 봄은 끝끝내 스러졌다. 소생의 계절이라 일컬으는 때에 재앙의 살기에 지고말았다.

자연의 봄은 이듬해에도 또 오겠지만 억울하게 빼앗긴 내 마음의 봄은 찾을길이 없다. 패

륜과 악덕과 사기가 살판치는 사람 못살 이 땅에 사랑의 봄은 다시 없을것이다.

이제 내겐 아들이 없다. 나는 사랑을 잃었다. 웃음을, 꿈을, 희망의 봄을 잃었다. 아니, 절통하게 빼앗긴것이다. 량심도 인간성도 체면도 집어던진 권력자들에게 진실과 정의를, 생명의 소중함을, 기대할 앞날을 무참히 유린당하였다. …

림하영은 가슴이 미여졌다. 빼앗긴 봄, 영영 가버린 봄에 대한 애달픔으로 설음이 막 북받쳐올랐다.

꽃망울들을 묻어버린 바다, 봄을 앗아간 이 세상이 그지없이 미웠다.

가물거리는 림하영의 의식속으로 아들애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어머니, 너무 슬퍼마! 일어나요.》

(정현아, 엄마가 죄를 졌구나.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엄마탓이 아니예요. 이 몹쓸 세상탓이예요.》

(어쩜 이런 진창속에 널 낳았을가. 흑—)

《엄마, 청와대에 손을 내밀다니요?! 그것들은 순 협잡군들! 속지 마세요. 그러단 다 죽어요. 아세요? 수백의 어린 목숨들을 팽개친채 양키상전께 봄나들이 간결… 정신차려요, 어머니―》

아들의 애절한 당부에 림하영은 혼몽한 정신에서 깨여났다.

갑자기 출입구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웅성웅성 끓는 사람들을 헤치고 조화 하나가 나타났다. 분향소의 한가운데를 비집고 서는 그 조화는…

귀신의 옷자락인양 너풀대는 댕기우에서 《푸른 집》의 마녀이름을 발견한 림하영은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꿈에도 소스라칠 이름이였다. 죽어서도 이를 갈고 침을 뱉을 치사한 사기군의 대명사였다.

(어디라구 감히…)

당치않은 뻔뻔스러움에 림하영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설음이 파도치는 이 자리에 버젓이 들어앉은 《대통령의 조화》가 메두사의 대가리마냥 끔찍스럽게 안겨왔다.

꽃의 탈을 쓰고 징글스럽게 웃는 마녀의 몰골이 환등그림마냥 련상되였다. 시장에서 내비친 한방울의 《눈물》에, 취임식때의 그 《웃음》에, 림하영에게 보내준 감사의 글줄이며 꽃다발속에 감춰진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보였다. 그 《눈물》은 때늦은 《사과》로 유가족들을 우롱한 《악어의 눈물》로 이어졌다. 그 《웃음》은 천변만화하는 장끼를 살려 이번엔 《대통령의 조화》로 둔갑하였다. 절묘한 각본에 잘 째인 연출, 감쪽같은 변장술에 기막힌 연기였다. 그것이 치차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위선의 련속극을 실감있게 꾸며내였던것이다. 동화속의 귀큰 토끼처럼 잘 속아넘는 순박한 인간들을 《인정》의 가면아래 한껏 비웃었을 천하악녀의 후안무치함에 림하영은 전률하였다.

위로도 애도도 조문도 아니였다. 격노한 유가족들에게 던지는 서푼짜리 추파였다. 한번 예쁘게 피여보지도 못한채 차디찬 바다속에 떨어진 수백의 꽃망울들에 대한 야비한 조롱이였다.

죽어도 가만히 있으라는 은근한 위협을 곁들인 《영면의 축하》였다.

제비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리고 《가엾어라, 가엾어라.》 하며 노죽을 떨었다던 먼 옛날 놀부를 무색케 하는 추태에 수천수만의 순결한 마음들이 피워놓은 애도의 꽃들이 수치로 떠는듯싶었다. 아름다움과 짙은 향내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즐거움과 희망을 더해주던 꽃들, 따뜻한 위로로 마음의 아픔을 씻어주던 꽃들이 저따위로 인하여 더럽혀진다면…

《안돼! 절대 안돼!》

림하영은 두눈에 시퍼런 불을 담은채 몸을 우쩍 솟구쳤다. 《대통령의 조화》를 밖으로 힘껏 동댕이쳤다. 온몸이 심장이 되여버린듯 세찬 박동으로 쾅쾅 뒤울렸다.

볼썽사납게 짓이겨진 《대통령의 조화》를 림하영은 후련한 심정으로 내다보며 되뇌였다.

《물러가! 여긴 너 있을데가 아니야.》

다시는 너절한것에 속지 않을 각성과 결의가

또박또박 찍혀울렸다.

우렁찬 박수가 림하영을 응원하였다.

은미가 살며시 림하영의 팔을 끼며 다정스레 품에 머리를 기대였다.

봄제사가 시작되였다.

어린 넋들을 불러 황황 타는 홰불을 안고 곳곳에서 모여들었다.

애들의 이름표를 멍든 가슴가슴에 달고 아빠가, 엄마가, 형제자매가 중심에 섰다.

모여서 술렁이는 인파우로 누군가의 시랑송이 추도사인양 비통하게 울려갔다. 민족수난의 옛세월이 남긴 시 《초혼》이였다. 그 세월로 끝일줄 알았던 수난이 재현되고있음에 가슴을 치면서 다들 따라 읊었다. 산산이 부서지고 허공중에 헤여진 이름들을 설음에 겹도록 부르는 어깨와 어깨가 세차게 떨렸다. 선채로 돌이 되여도 부르다 죽을 사랑하는 그 이름들이 진도의 부두가를, 하늘을, 바다를 가득 채우며 간절히

불리우고 또 불리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을 뺏긴 가족들, 생때같은 어린것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자리를 차고 일어나 피눈물을 씻으며 목소리를 합쳤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수천수만의 심장을 두드렸다.

《…특별법은 돈을 달라는것도, 특혜를 달라는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죽어간 리유를 밝혀달라는것입니다. 참사를 초래한 부정부패를 짓부시고 다시는 가족생리별의 아픔을 겪는 이가 없도록 하고싶은 마음입니다. …》

흥분으로 얼굴이 발갛게 타오른 은미가 대중앞에 나섰다. 바다바람에 나붓기는 짧은 머리카락을 한손으로 비다듬으며 극장무대우에 선듯 진지하고 절절하게 느린 가락을 뽑았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춘삼월 호시절 웬 서리인가
꽃망울 스러졌다 가슴이 탄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오지를 말어라 명춘 삼월아
차디찬 무정세월 한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진도의 눈물에 강토가 운다
기다려 아니되리 원한의 세상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남도의 토속민요곡조에 즉흥가사를 붙인 은미의 《진도아리랑》은 기발한 재치라기보다 가슴을 치는 울분의 토로였다. 봄을 앗긴 이 세상을 추모하는 애도가로 모두의 비감을 자아냈다.

림하영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은미를 바라보았다. 은미는 풋병아리도, 무른 처녀도 아니였다. 참된 삶과 행복을 지향하는, 온갖 불의와 위선을 외면하지 않고 호되게 단죄하는 이 땅의 정의로운 새 세대였다. 이 땅에도 선은 있다. 날날의 선은 비록 약할지언정 정의로 굳게 뭉쳐진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림하영은 진리를, 진실을 깨우쳐준 은미가 그지없이 고맙고 사랑스러웠다.

너도나도 은미의 타령에 합류하였다. 목청이 아닌 후더운 심장의 열기로 호응하였다. 림하영도 온몸과 온넋으로 은미의 노래를 따라불렀다. 뼈를 무너뜨리는 절망을 박차고 위선을 짓조기며 희망의 봄을 부르는 민심의 호곡이, 피맺힌 절규가 가슴마다에 맥맥히 굽이쳐흘렀다.

× × ×

그때로부터 1년후, 강산은 또다시 봄을 맞이하

였다. 그래도 봄이라고 버들개지 움트는 시내속으로는 쪽빛의 봄물이 흘러들었고 땅우로는 겨울을 견뎌낸 민들레며 냉이가 야들야들한 잎새를 뾰주름히 내밀었다. 허나 이 땅의 봄강산에 가득한것은 소생의 환희가 아니련듯… 어쩐지 기죽어보이는 도무지 봄같지 않은 《봄》이였다. 례년에 없이 쌀쌀한 대기속에 조심스레 내민 새순들로 순번의 계절을 알렸다. 이 땅의 봄은 그렇게 조심스레 꽃이 피고 그렇게 조심스레 푸르러갔다.

쓰린 가슴에 재를 얹어주며 무수히 흐른 날과 날속에 림하영은 주인공이 없는 정현이의 생일을 두번이나 맞이하였다. 매질과 바꿨던 튜립이 못견디게 그리운 어버이날도 두번 있었다. 애가 돌아온다던 금요일은 또 몇십번 왔다갔던가. 상실의 아픔은 눈덩이처럼 이리저리 굴리우면서 날이 갈수록 커졌고 송곳박힐 틈도 없이 꽁꽁 다져졌다.

이 봄에도 림하영의 발길은 변함없이 평목항으로 향하였다.

벌써 몇번째런가. 이해 봄에만 해도 세번째… 평생 와본적 없던 이 땅끝마을을 그동안 림하영은 셀수 없이 찾았다. 정녕 잊을수 없는 곳이였다. 사무치는 그리움에 마음이 앞서 달리는 곳이 고향이라고들 한다. 림하영에게 팽목항은 고향처럼 되여버렸다. 고향길은 기쁜 걸음이라지만 그의 길은 고행이였다. 운명적인 걸음이였다. 자욱자욱 피가 고이는 원통한 이 길을 림하영은 진실을 바라는 눈물겨운 탄식으로, 차넘치는 비애에 무릎보다 마음에 피멍지는 《삼보일배》로, 인정의 봄을 부르는 애달픈 기원과 한맺힌 절규로 이어왔다.

가만있으라는 한마디로 수백의 꽃망울들을 수장시킨 청와대의 악한들이 가슴찢기는 아픔에 오열하는 유가족들에게 돈 몇푼 줘내깔리며 찍소리말고 가만있으라고 위협을 하는 행실이 림하영을 더는 참을수 없게 만들었던것이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몰인정한 위정자들탓에 아직도 차디찬 바다속

에 한을 품고 잠겨있는 아들애를 불러불러 림하영은 끝없는 진도길에 몸과 마음을 깡그리 바칠 심산이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선체인양요구에 림하영은 목숨을 걸고 한생을 건것이다.

그 길에서 림하영은 알았다. 배신의 서막을 열어제낀 남편을 추악한 일개인으로 증오하며 무시해버린 자신은 몽매한 인간이였다. 그런 추물들을 배설하는 사회악의 근원을 투시하지 못하였다. 썩은 개체들을 배태하고 겹겹이 둘러싸서 보호증식시키는 이 사회의 근본죄악을 묵인하였다. 만사를 체념하고 저 혼자 오달지게 살면 그만인줄 여긴데 극도의 우둔함이 있었다. 누워서 침뱉는 격으로 이제 그 화가 자신에게 떨어졌다. 악을 외면할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꿰뚫어보았어야 하였다. 그래서 아예 송두리채 들어내쳤어야 아들애를 지켜낼수 있었던것이다. 림하영은 뒤늦게나마 이것을 심장에 쪼아박은것이다.

림하영은 인왕산마루에 올라 《푸른 집》을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헛된 기대에서 어이없

게도 우상으로 쳐다보았던 괴물이 둥지틀고있는 악의 본거지! 저기다! 바로 저기서 이 땅을 어지럽히는 온갖 위선과 기만이 쏟아져나온다. 림하영은 내심의 절규로 의지를 굳혔다.

(박근혜! 쩍하면 물은 곬을 따라 흐른다는 말만 외우면서 뒤말은 왜 모르는척 해?! 죄는 지은데로 간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거늘. 아무렴, 그렇다마다.)

오늘도 림하영은 아들애를 마주하듯 진도바다가를 눈뿌리가 시큰하도록 바라보고 섰다. 슬픔을 넘어 결연한 의지가 비낀 얼굴을 번쩍 들고 아들애와 마음속대화를 끝없이 나누었다.

… 정현아, 너 약속했지? 금요일엔 꼭 돌아오마고. 그래그래, 이 하루도 엄마에겐 금요일이구나. 얼마전 네 생일날 엄만 색종이로 예쁜 바람개비를 만들었단다. 그걸 여기 부두가 란간에 정성껏 매놓았더랬지. 우리 봄바람, 정현이 살랑살랑 불어와 이 엄마를 반기라고 말이야. 헌데 여적 그대로 팔랑거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작년 겨

울까지 그 잘난 《국회》앞 잔디밭에 노랗게 가득 꽂아놓았던 《진실의 바람개비》를 생각하면 참 허망하기만 하다. 슬픔에 쓰러지는 유가족앞에 나타난것은 《근혜차벽》뿐이였고 인피를 쓴 괴물들은 못 본척 바람개비를 지나쳐버렸어.

정현아, 외로워말아. 그새 너에겐 숱한 가족이 생겼어. 함께 슬퍼하고 함께 노여워하면서 모진 이 세상을 결단코 끝장내자고 힘을 주는 착한이들이란다. 가족도 친척도 아닌 고마운 사람들이 널 대신해서 어깨를 받쳐주며 한길에 걸어 엄마도 외롭지 않구나.

무대를 타던 나도, 가게를 보던 경주 엄마도 너희반 애들 부모모두가 생업을 걷어치웠어. 명예는 해서 무얼 하고 돈은 벌어 뭣에 쓰겠니? 다 너희들을 위해 애써 갖추어오던것들인데.

엊그젠 경주 엄마랑 피눈물속에 삭발을 했지. 엄만 종내 못했어. 금방이라도 너 돌아와 엄말 못 알아보면 어떡해. 가뜩이나 주름살이랑 흰머리칼이 늘어 딴 엄마라 도리질할가봐 걱정인데.

어느 금요일엔가 엄마품에 돌아올 네가 아니냐. 그땐 발에 꼭맞는 멋진 운동신을 신겨주마. 엄만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너 아니? 엄마가 대단해졌어. 현란한 조명아래 인기가수로가 아니야. 아들 뺏긴 《덕》에 《해도너무한 <시체장사군>》이라는 비양도 듣고 《종북》의 요란한 감투도 벌고 《란동분자》로 잡혀갔댔다. 너희들 어린 생명들을 두번, 세번 죽이다 못해 살아 숨쉬는 우리마저 못마땅해 고농도의 최루액벼락까지 선사하더라. 《쓰레기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실을 인양하라는 엄마네의 절절한 요구가 참사를 《사고》라고 떠벌이는 《푸른 집》의 위선자들 비위에 거슬렸나봐.

살릴수 있는 너희를 등지고 나 몰라라 아닌보살한 나쁜 놈들 미운 꼴 더는 가만두지 못하겠어. 너희들이 물에 잠기던 작년 4월 16일에 종적을 감췄던 《푸른 집의 악녀》는 올해에도 꼭 그날 대양건너로 꼬리를 사렸댔지. 유가족의 통곡이 듣기 싫다는 뺑소니행각에 모두 침을 뱉았

어. 동족보다 남이 그렇게 좋은가부야. 미국상전의 상처따위에 혼겁하여 야단법석을 떠는 국적불명의 사대미친증환자가 전염력을 더 시위하기 전에 빨리 결단을 내야 해.

엄만 절대 지지 않아. 네가 이 가슴에 살아있는 한 열심히 싸울거야. 선이 죽기를 기다리는 악의 땅, 목줄이 끊기워도 항변은 고사하고 숨져야 할 리유조차 물으면 안되는 이 땅의 무권리한 인생모두를 위해 함께 싸워이길거야.

가만있다 빼앗긴 봄 엄마네가 모두 찾아올테다. 가슴에 응어리진 한이야 풀리랴만 하나하나 소중히 합쳐서 인정으로 따스한 봄나라를 꼭 안아올게, 믿어줘!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

어디선가 바람이 분다. 정현의 사진우에 둘렀던 노란 댕기, 그 댕기로 만든 희망의 리봉이 림하영의 앞가슴에서 맥뛰듯 세차게 파득거렸다.

쏴— 철썩, 쏴— 처절썩…

와닿았다가는 물러서고 물러섰다가는 다시 달

려오는 파도소리가 귀익은 목소리를 불러왔다.

《엄마는 봄별, 나는 봄바람!》

쉬임없이 정을 속삭이는 아들애의 목소리였다. 오래간만에 마음의 평온을 되찾은 림하영은 물기도는 두눈에 미소를 띠웠다.

림하영은 입가에 손나팔을 가져다대고 목놓아 불렀다.

《정현아—》

더이상 힘없는 눈물의 하소가 담긴 처량한 부름이 아니였다. 봄을 부르는 소리였다. 인정의 동토대에 기어이 봄을 안아올 목숨같은 의지이고 약속의 웨침이였다.

누가 바다에는 메아리가 없다고 했던가.

망망한 바다우로 멀리멀리 울려퍼진 림하영의 피타는 부름은 쏴— 쏴— 화답하는 파도소리며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는 분노의 함성들과 어울리고 합쳐지면서 거대한 진폭으로 창창 메아리쳐갔다.

서정시

진도의 파도는 잠들지 못한다
(외 2편)

— 한 《세월》호 실종자어머니의 절규 —

김 송 림

아들의 생일날에…

오늘이 너의 생일이여서
엄마는 이전처럼 생일상을 차린다
그렇게 좋아하던 깨떡
네 사진앞에 바투 놓아준다

먹을수 없는 떡이란걸 왜 모르랴만
그래도 어쩐지 네 식성에
작지나 않은지 근심스럽구나
말없이 사진속에서 웃고만 있으니
이 엄마의 가슴엔 피가 차오른다

과연 이것이
생일상이냐 제상이냐
물어보자 자식의 생일상 차려주며
슬픔의 눈물 떨구는 그런 엄마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다더냐

옹근 한해동안
차디찬 저 바다속에서
아무것도 입에 못 대본 너
아들아, 어서 사진속에서 나와
엄마가 만든 깨떡 맛나게 들수 없겠니

사랑으로 빚던 이 깨떡을
오늘 이 엄마는 분노로 빚었다
이제 더는 너 먹을수 없는 깨떡이
이 엄마의 가슴에 슬픔의 덩어리로 맺혔다

일년 내내 너의 배는 곯았으련만
이 엄마의 가슴엔 슬픔만이 꽉 차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슬픔 이 억울함 풀기 전에는
엄마는 분노를 빚고빚으련다
깨떡을 빚던 손으로 증오를 빚으련다

엄마라고 말하지 않겠다!

애어린 꽃망울 터쳐 못 본채
그렇게 쉽게 어미품을 떠나라고
나는 너를 키우지 않았다

차디찬 바다속 불쌍한 내 아들
애타게 찾는 이 가슴 터지라고
엄마는 네 등을 떠밀어
《수학려행》 보내지 않았다

내곁에 네가 없은 그 순간부터
나는 엄마가 아니였다
부모잃은 자식 고아라 한다면
자식잃은 엄마는 과연 무엇이라더냐

아들아!
그냥 앉아 눈물만 보일수 없어
엄마는 몸을 떨며 분연히 일어섰다
펄펄 끓는 증오를
두눈에 숯불처럼 켜들고
터져오르는 분노를
작은 두주먹에 움켜쥐고

나섰다 엄마는 항거의 거리에
자식을 잃은 엄마는 무서운것이다
이 어미 너를 다시 품에 안기 전엔
나는 엄마라고 말하지 않겠다!
저주로운 이 세상에서
나는 엄마로 다시 살지 않겠다!

진도의 파도는 잠들지 못한다

수심은 그리 깊지 않건만
오늘도 오늘도
쉬임없이 일렁이는 진도의 파도

물살이 하도 빠른 곳이여서
너는 잠들지 못하는것이냐

쏴— 설레이는 검푸른 파도
비명에 간 애어린 목숨들
그 울분을 터쳐
너 몸부림치며 태질하는것이냐

한해전 네 바다우에 터치던
구원의 웨침, 피젖은 곡성
지금도 파도소리를 짓누르며 울려오는듯
선체를 허비다 피터진 고사리손들
검푸른 네 파도우에 얼른거리는듯

노호하라, 진도의 파도야!
너 우리 아이들 편이거든
너 피멍든 엄마들 편이거든
무정한 이 세상을 집어삼키라!

오, 자식잃은 엄마들의 노성인가
애어린 영령들 원한의 분출인가
진도의 파도는 격랑을 일으킨다
분노의 바다는 잠들지 못한다

유모아

《당신은 한쌍의 고래를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생활에서도 위선을 부리며 렴치없는 사기한들을 무한히 증오하였다.

한번은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이름을 떨칠 몽상만 하고있는 어느 한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가관이였다.

《듣건대 물고기뼈는 많은 린이 포함되여있다고 하는데 그 린은 뇌의 보양제로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알려진 유명한 작가가 되려면 많은 물고기를 먹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반드시 많고많은 물고기를 잡수셨다고 보는데 도대체 어떤 물고기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마크 트웨인은 곧 답장에 《보건대 당신은 한쌍의 고래를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써보냈다. …

작가일화

《녀성이 쓴것이라니 더욱 귀중한 보물이요》

16세기 우리 나라 녀류시문단에 자욱을 남긴 허란설헌은 길지 않은 생애에 방 한칸을 채울 정도로 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스스로 모두 불태운것으로 하여 남아 전하는것은 200여수뿐이다. 그의 작품들이 오늘까지 일부 전해지는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런 일화가 전해오고있다.

허란설헌의 동생 허균이 마흔살 나던 해에 이웃나라에서 오는 주지번이라는 사신을 맞이하는 관원으로 임명되였다. 허균은 한양에서 사신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 지어 교환하기도 하였다.

한번은 주지번이 허균의 글재주에 감탄하면서 기념으로 될 글 몇편을 자기에게 달라고 부

탁하였다.

《공의 재주가 범상치 않으니 공이 쓴 몇편을 주면 돌아가 길이 기념으로 삼을가 하오.》

그의 말에 허균은 지금까지 자기가 필사하여 간수하고있던 누이 허란설헌의 작품들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에게 변변한 글이 없소. 다만 누이 란설헌의 시작품들이 있는데 한번 보오.》

그 시들을 본 주지번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원, 이런 훌륭한 시들은 우리 나라에서도 얻기 힘드오. 더군다나 녀성이 쓴것이라니 더욱 귀중한 보물이요. 이걸 나에게 주시오!》

그리고는 허균이 다시 달래기라도 할가보아 그 시들을 자기쪽으로 끌어당겨놓으며 거듭 청하는것이였다.

《제발 부탁이니 이 시들을 나에게 주시오. 다른것은 더 필요치 않소!》

자기 나라에 돌아간 주지번은 그 시들을 묶

어 《란설헌집》을 찍어냈다. 시집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았던지 얼마 안되는 기간에 종이값이 배로 올라갔다고 한다. 이렇게 되여 허란설헌의 시들이 세상에 알려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였고 다른 나라에까지 널리 소개되게 되였다.

이웃나라의 이름난 작가였던 조문기는 허란설헌이 7살때 지었다고 하는 《광한전 백옥루상량문》을 보고 몹시 감동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글을 읽으니 참으로 신선이 되여 백옥루에 올라가는것 같은감이 난다.》

수필

하나에 대한 생각

리 은 향

해마다 6월이 오면 《하나》에 대한 생각이 더욱 깊어진다.

삼천리강토에, 세계만방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대명제를 깊이 심어준 6월을 맞고보니 그 《하나》라는 말이 천만근의 무게로 안겨들며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하나 민족도 하나
하나 피줄도 하나
하나 이 땅도 하나
둘이 되면 못살 하나
…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소리가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깊게 새겨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백두산하늘아래 태줄을 묻고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우리 민족은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이 오직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왔다.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이 많지만 우리 겨레처럼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나라와 민족은 없다.

언제인가 조국을 방문했던 한 해외동포인사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세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민족도 수천을 헤아리지만 오직 하나의 민족으로 반만년

을 이어오며 하나의 강토에서 산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우리 겨레는 처음부터 하나였고 지금도 하나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로 살아야 한다. 바로 그래서 우리 겨레는 〈우리는 하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둘이 되여서는 살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진지도 어언 70년.

얼마나 많은 혈육들이 서로 찾고 부르며 눈물로 패인 상처를 씻어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자고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는가.

장장 70년간에 걸친 민족분렬사, 이 치욕의 력사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로 합쳐지면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다는 력사의 교훈과 조국통일은 오직 온 겨레가 하나로 뭉칠 때만이 이룩될수 있다는 심각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하나!》

진정 이 짧은 말속에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의 력사가 함축되여있고 외세에 의한 분렬로 갈라져 흘린 피눈물과 불행의 자욱이 어려있다. 또 반드시 하나가 되여야 할 민족의 소원이 담겨져있고 하나될 통일조국을 위해 한몸바쳐갈 겨레의 의지가 고동치고있다.

이 말의 참뜻을 되새겨볼수록 조국통일운동사에 쌓으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새겨진다.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에 받들려 이 땅에는 마침내 하나의 목소리로 터치는 우리 민족끼리의 함성이 메아리쳤고 북과 남이 하나되여 전진하는 6.15자주통일시대가 펼쳐졌다.

2000년 6월의 그날로부터 삼천리강토에는 얼마나 장쾌한 우리 민족끼리의 화폭들이 펼쳐졌던가. 북남의 곳곳에서 하루빨리 하나가 되고저 7천만이 웨친 《하나!》, 《우리는 하나!》의 함성은 그 얼마나 장엄했던가.

나는 지금도 6.15공동선언발표 6돐 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광주에 갔을 때의 일을 잊을수 없다.

우리 대표단이 축하공연에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의 노래를 부르자 거기에 참가한 남녘동포들모두가 한목소리로 화답해나섰다.

공연후 어떤 녀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을 부둥켜안았고 어떤 학생들은 공연에서 불렀던 노래를 다시 부르자고 하면서 우리들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여기에는 분렬이 없었다. 북과 남이라는 간격도 없었다. 모두가 통일이라는 열망 하나만으로 불타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북에 있건 남에 있건 우리모두는 하나의 피줄로 이어진 같은 동포라는 확신을 받아안았다.

지금 우리 민족끼리의 앞길에 검은구름이 드리우고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새 세기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

을 전면부정하며 자주통일의 앞길에 빗장을 지르려고 하는 남조선 친미보수집권세력의 반통일적책동은 격랑을 일으키며 사품치는 파도에 밀려 사라지고말 거품일뿐이다.

하나가 되는것, 이것만이 부강번영할 우리 민족의 미래이며 력사의 법칙이다. 그날 또한 멀지 않다.

우리 민족에게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통일의 태양이 우리의 앞길을 찬란히 밝히고 온 민족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한마음으로 받들기에 갈라진 땅, 헤여진 민족은 머지않아 하나가 될것이며 온 겨레가 세세년년 부강번영을 노래하게 될것이다.

이 확신을 6월의 푸른 하늘에 새겨보는 심정으로 나는 다시한번 마음속으로 웨쳐본다.

《하나!》

《우리는 하나!》

《하나에 하나를 합쳐 더 큰 하나가 되자!》

서정시

합토비가 웨친다(외 1편)

리 송 일

평양의 남쪽입구 길섶둔덕에
수십년의 년륜을 감은 비돌 하나
백두—한나국토대행진의 나날
북과 남의 흙을 합친 합토비

어이하여 북과 남의 흙을 합쳤던가
이 땅은 한지맥
백두산천지물이 흘러내리면
한나산 백록담에 푸르게 고이는
반만년 자자손손 한조상의 땅

이 하나의 강토를 뭉청
날강도 미제가 두동강을 내

아, 길들이 잘리우고 산천초목이
　갈리우고
부모처자들이 헤여져 애를 태우고…

아, 이렇게 분렬민족으로
오욕속에 몸부림치던 우리 겨레
통일! 통일!
피눈물에 젖은 절절한 소원 담아
이런 합토비까지 만들었었거니

그 20세기의 비극을
력사속에 통쾌히 매장하던 6.15!
동강난 강토의 혈맥을 이어주고
갈라졌던 겨레마음 합쳐주며
통일을 꽃피우던 우리 민족끼리여

남녘에서 평양으로
북녘에서 서울로
날마다 통일대오가 굽이칠 때

합토비여
너 얼마나 들먹이였더냐

이런 6.15에 먹칠을 하며
남녘의 매국노들 동족대결에 날치니
합토비도 서리발 분노를 뿜는다
사대매국노들의 명줄 끊어버리라고

아아, 민족의 절규인양
합토비가 웨친다
6.15를 사수하라
분렬된 삼천리강토는
우리 민족끼리로만 합칠수 있다!

대동강반에 앉아서

출렁출렁
릉라도를 감돌아흘러
출렁출렁
대동강물 어디로 가나

출렁출렁
양각도 지나, 서해갑문 지나…
출렁출렁
대동강물 서해로 가지

서해를 따라 출렁출렁
대동강물은 남해로 간다
그 물결에 둥실 내 마음도 실려
가노라, 가노라
그리운 남녘겨레들에게

지금도 몸성히 무고하신지
아리랑곡조에 맞추어 덩실덩실
릉라도 5월1일경기장이 좁아라 춤추던
인천녀인이여, 부산할아버지여…

남녘을 휩쓰는 반공화국광풍
  물리치며
열다섯돐 6.15기념행사장에 섰겠지
백두산정에 올라 해맞이하고
묘향산 폭포수로 온몸 적시며
통일, 통일을 웨치던
남녘의 청년학생들, 지식인들이여…

세월은 열다섯해 이끼를 덮었어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모습들
이 마음에 비끼여 물결우에 어리여
나는 오늘도 남녘겨레들과
  속삭이노라
6.15를 목숨바쳐 지켜가자고

《동요할아버지》가 부른 노래

김 성 희

윤복진(작가)

- 1908년 1월 9일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출생.
- 1931년 일본에서 고학.
- 1964년부터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 1991년 7월 16일 사망.
- **김일성**상계관인.

우리 나라의 재능있는 수많은 작가들중에는 앞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친근한 교양자로 동심의 향기를 풍기며 한생을 동요창작에 바친 아동문학작가 윤복진도 있다.

윤복진은 현대조선동요문학발전에 자기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으며 창작생활 전기간 사상예술성이 높은 아동시들을 창작하여 후대교양에 이바지하였다.

그래서 동시대작가들과 시인들은 그를 《동요할아버지》라고 불렀다. 해외에서 활동하고있는 아동문학작가들속에서도 그는 《동요할아버지》로 불리워지고있다.

남다른 존경과 사랑의 호칭으로 불리우고있는 《동요할아버지》 윤복진의 한생은 어떻게 흘러왔으며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지었는가.

설음의 시, 눈물의 동요

1908년 1월 경상북도 대구시변두리의 한 가난한 가내수공업자네 집에서 갓난애의 울음소리가 여무지게 흘러나왔다. 풀이나 나무, 돌 같은 자연재료에 의거하여 고리도 엮고 솔이나 도시락도 만들어 팔아 연명해가는 미여지게 가난한 이 집에 태여난 아들애가 후날 우리 나라의 현대아동문학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는 인재로 될줄 그 누가 알았으랴.

타고난 재간은 귀신이 돌보아 빛을 내게 해준다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모든 일을 성

공시키는데서 천성이 중요하다는것을 강조해주는것이지 결코 타고난 재간이 있으면 성공이 저절로 온다는 말은 아닌것이다.

천성적인 재간을 가진 어린것들이 너무도 무참히 굶어죽고 맞아죽고 앓아죽고 한것이 해방전 우리 나라 실태가 아니였던가.

《고리쟁이》, 《솔쟁이》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버지를 따라 산에도 오르고 들에도 나가고 장에도 나들며 어린 윤복진은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사는것이 현실이라는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였다. 손톱끝이 닳도록 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덕에 윤복진은 가까스로 소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시작하였다.

우리 글을 알게 된 그때부터 그는 즐겨 책을 읽고 글을 지어보면서 문학적소양을 쌓았다. 소학교를 마치고 계성중학교에 입학한 그는 3학년때부터 아동시도 써보고 성인시도 써보았는데 그 과정에 점차 아동시문학에 마음이 끌리게 되

였고 동요창작에 열중하게 되였다.

조숙한 윤복진이 처녀작으로 지상에 발표한 작품은 14살 나던 해인 1922년 봄에 지은 동요 《종달새》이다.

어느날 아침 그는 학교로 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달새의 처량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였다. 가까이 가보니 길가집 추녀밑에 걸려있는 조롱안에서 한마리의 종달새가 애처롭게 울고있었다. 자유를 잃고 구슬프게 우는 종달새의 울음소리가 그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아름다운 내 고향, 내 조국이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혀 신음하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못견디게 치밀어오르는것이였다.

그날 윤복진은 학교에 가서 그 종달새를 두고 눈물어린 동요를 썼다.

보리밭의 종달새
봄이 왔다고
은방울 흔들면서

노래하기를
누구든지 같이 와
놀고 가래요

처마끝 조롱속의
옛집 그린 새
보리밭을 보면서
슬피 울기를
갈래야 갈수 없는
맨몸이래요

동요는 이렇게 짧은 2련으로 되였다.

조롱속에 갇혀있는 새, 옛집을 그리며 슬피 우는 종달새는 어떤 새인가. 순수 자연의 새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종달새는 사랑하는 옛집, 조국을 원통하게 빼앗긴 우리 어린이들이였으며 우리 겨레였다.

동요는 세상에 발표되자마자 작곡이 되여 나라를 빼앗기고 봄마저 잃었던 이 땅의 아이들에

의해 즐겨 불리워졌다. 산골에서 나무하던 소년들도 지게를 지면서 부르고 도회지에서 공부하던 소년들도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불렀다.

윤복진의 처녀작은 이처럼 나라잃은 설음속에 흘리는 눈물의 동요로부터 시작되였다.

처녀작발표후 윤복진은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수십편의 동요를 창작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설음,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을 노래한 동요들인 《두만강을 건느며》(1924년), 《고향집》(1927년), 《고향하늘》, 《강남가는 제비》(1928년) 등을 비롯하여 착취사회의 최하층에서 온갖 학대와 빈궁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비참한 처지와 비극적운명을 보여주는 동요 《쫓겨난 부엌데기》(1927년), 《팔려가는 우리 황소》, 《스무하루밤》(1928년), 《후여 딱딱 참새야》(1930년) 등 여러 주제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작품들은 모두 망국의 비운이 드리운 땅에서 작가자신이 직접 체험한 나라없는 어린이들

의 비참한 처지를 동심어린 눈물속에서 펼쳐보인것들이였다.

동요 《두만강을 건느며》는 그 대표작의 하나이다.

윤복진은 어렸을 때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수많이 보았다. 그때 윤복진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거장이 있었다. 동무들과 함께 정거장에 나가보면 일본이나 만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람루한 옷차림, 이고 진 보짐, 백발의 로인들, 배고파 칭얼거리는 어린것들… 조국을 떠나가는 류랑민들의 모습이 너무도 불쌍하여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그들가운데는 이웃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한마을에서 함께 놀던 어깨동무들도 있었다. 그때 어린 마음에도 저 늙은이들이 살아서 고향땅에 다시 돌아올 날이 과연 있기나 할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서글픈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정거장에 갔다온 날 밤이면 불쌍한 류랑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얼른거

리고 처량한 기적소리가 귀전에 울려와서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윤복진은 이 눈물겨운 두만강에 깃든 기나긴 력사의 이야기를 동요에 담아보려고 붓을 들었다.

눈보라는 펄펄
가는 길 막는데
보짐을 이고 지고

떠나야만 하나요
이 강을 건너서면
남의 나라 땅
…

돌아보면 내 나라
그리운 내 고향
언제 오나 묻지 말아

다시 올 날 있으려니
잘 있으라 내 나라
그리운 내 고향

동요 《두만강을 건느며》는 눈물속에 조국을 떠나가는 겨레의 모습과 그리운 조국산천을 돌아보며 해방의 날을 고대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심정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동요 《쫓겨난 부엌데기》도 작가가 눈물나는 생활체험속에서 쓴것이다.

윤복진의 집옆에는 울타리도 없는 오막살이 한채가 있었다. 코구멍만 한 단칸방에 자그마한 부엌이 달린 집이였다. 그 집에서는 갓난이라는 아이가 어머니와 단 둘이서 참으로 가난하게 살고있었다. 해빛이 들지 않아 방안은 대낮에도 어둑컴컴하였다. 어린 갓난이는 노닥노닥 기운 헌 치마를 입긴 하였지만 여간만 귀여운 아이가 아니였다. 일을 나간 어머니를 대신하여 물도 긷고 밥도 짓고 빨래도 하였다.

복진은 갓난이와 세간놀이를 할 때마다 새각시, 새서방이 되군 하였다.

윤복진네 집도 살기가 어려웠지만 누룽지가 생기면 갓난이손에 쥐여주고 어쩌다 떡을 치면 갓난이네 집에도 가져갔다.

그런데 하루는 웬 일인지 갓난이가 보이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되여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윤복진은 갓난이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가만히 물어보았다.

《갓난이는 어디 갔나요?》

갓난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런 말도 없이 먼산만 바라보았다. 한참이나 그러고있던 갓난이 어머니는 옷고름으로 눈굽을 닦고나서 갓난이가 아버지의 빚값에 팔려 먼곳에 부엌데기로 끌려갔다고 말해주는것이였다. 윤복진의 두눈에서도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그후 윤복진네는 멀리 성밖으로 이사를 하였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자그마한 초가집이였는데

앞에는 대궐처럼 요란한 고대광실 큰집이 솟아 있었다. 그때 대구에는 잘사는 부자들이 많았다. 그가운데서도 앞집은 소문난 큰 부자집이였다. 집은 대문이 몇개나 되는지 몰랐다. 성문처럼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문과 안문이 있고 중간문과 사랑문이 있었다. 그 집에서는 일년내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거들먹거리며 호화롭게 살았다. 이른새벽부터 고기를 굽고 지지는 냄새가 높은 담을 넘어 풍겨오고 《순아, 순아?》 하고 부엌데기를 찾는 소리가 연방 들려왔다. 밤이면 술판을 벌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혀꼬부라진 소리와 함께 기생들의 간드러진 노래소리, 장고소리가 그칠줄을 몰랐다.

어느해 여름, 며칠동안 내린 장마비에 그 부자집 담장 한쪽모서리가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그때에야 복진은 지주집 부엌을 들여다볼수 있었는데 너렁청한 부엌에서 부엌데기들이 땀을 흘리며 눈코뜰새없이 돌아가고있었다. 높이 쌓은 담장너머에서 부엌데기를 찾는 지주녀편네의 앙

칼진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는 잊지 못할 소꿉동무 갓난이를 그려보군 하였다.

그애는 어느 집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다하고있을거야, 살아있기나 한지…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길가에서 오돌오돌 떨고있는 한 소녀를 보게 되였다. 그 모습이 신통히도 갓난이같아 가까이 가보니 다행히도 아니였다.

집에 돌아온 윤복진은 그날 밤 들창밖에서 흩날리는 차디찬 눈을 바라보며 동요 《쫓겨난 부엌데기》를 썼던것이다.

바람불고 눈오는 추운 겨울에
가엾은 부엌데기 쫓겨났어요
심술궂은 마님한테 쫓겨났어요

솜옷을 입어도 추운 겨울에
가엾은 부엌데기 쫓겨났어요
홑옷입고 발발 떨며 쫓겨났어요

바람차고 눈오는 추운 겨울에
쫓겨난 부엌데기 어디로 가나
집도 없는 부엌데기 어디로 가나

동요에서 보여준 쫓겨난 부엌데기의 모습은 착취자, 압박자들에게 짓눌려사는 불쌍한 우리 어린이들의 운명이였다.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밝은 희망의 앞날을 안겨주지 못한 부족점이 있기는 하지만 쫓겨난 부엌데기의 눈물겨운 모습을 통하여 독자들의 가슴속에 부자를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윤복진의 눈물의 동요는 고향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을 노래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일제의 가혹한 책동으로 해마다 수많은 우리 인민들이 살길을 찾아 남의 나라로 떠나갔다. 그 시절에는 한마을에서 살던 소꿉동무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의례히 부모를 따라 현해탄을 건너간 것이였고 한학급에서 공부하던 동창생이 없어졌

으면 두만강을 건너 북간도로 떠나간것이였다.

윤복진네 집살림도 점점 쪼들려갔다.

일제는 끈을 꼬아 장마당에 내다 파는 가내수공업자의 자그마한 기계마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아나섰다. 하여 그런대로 밥술이나 먹던 살림마저 가랑잎처럼 흩날리고말았다.

집안어른들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살아갈 길을 걱정하였다. 일흔이 넘은 할아버지는 《우리 집 형편에 공부가 당치않다. 우리 대에 와서 책 한권이라도 뗀 사람이 있으면 좋기는 하련만…》 하고 말하고나서 긴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자 복진이 아버지가 나앉으며 《이제 한두해만 고생하면 중학을 마칠텐데… 하나밖에 없는 손주가 아닙니까.》 하고 하소연하였다.

윤복진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더는 앉아서 듣고만 있을수 없었다. 그러니 우리도 고향을 등지고 북간도로 떠나가야 한단 말인가. 그는 울적한 마음을 달랠길 없어 사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발길 가는대로 걸었다.

그날따라 고향의 푸른 산과 넓은 들이 더더욱 유정하게 보이였다. 집앞을 감돌아흐르는 작은 시내물도 《가지 말아, 가지 말아.》 하고 속삭이는듯 하였다. 이 심정을 동요에 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 직접 당하는 일이라 붓만 쥐면 단숨에 쓸것 같았다. 윤복진은 논두렁에 앉아서 북받쳐오르는 시정을 동요 《고향하늘》에 담았다.

푸른 산 저 너머로 멀리 보이는
새파란 고향하늘 그리운 하늘
언제나 고향집이 그리울 때면
저 산 넘어 하늘만 바라봅니다

처음에 그는 동요의 첫머리를 《푸른 산》으로 하지 않고 《백두산》으로 뗴였다. 그때 두만강에 피눈물을 뿌리며 북간도로 떠나간 사람이나 관부련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간 사람이나 그 누구 할것없이 백두산을 바

라보며 내 고향, 내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군 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가혹한 검열때문에 《백두산》이라는 표현대신에 《푸른 산》이라고 쓸수밖에 없었다.

빼앗긴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동요는 발표후 몇해가 지나 윤복진이 일본으로 가려고 도항증을 떼는데 애를 먹였다.

그가 대구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여우같이 생긴 고등계주임놈은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것이였다.

《우리는 대구소년회때부터 네놈을 주목해왔다. 어린 놈이 그때부터 배일사상이 강했다. 민요 <우리의 마실>을 비롯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노래를 적지 않게 썼지. 그리고 두해전에는 고향을 노래하는척 하면서 조국을 노래했지. <푸른 산>이란 무슨 산이야? 그것은 백두산을 두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모를줄 아는가! 너 같은 놈은 공부를 하면 더 나빠질수 있다. 어디 한

번 된매를 맞아보아야 정신이 들겠는가?》

윤복진은 주먹을 꽉 틀어쥐였다. 참을수 없는 분한 생각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으나 그 자리에서 당장 어찌할수 없었다.

그 이듬해 봄에야 그는 겨우 현해탄을 건너갈수 있었다.

윤복진은 도꾜에서 고학을 하면서 없는 시간을 짜내여 조선인류학생회가 운영하던 야학을 찾아다니며 우리 말과 글을 가르쳤다.

빈민굴로 소문난 후꾸가와 혼쬬, 스미다가와 마라기와기슈에 가면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차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

윤복진이 재일동포들과 그 자녀들에게 새로 나온 우리 나라 노래를 배워주고있는데 동요 《고향하늘》은 이미 그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었다. 서글픈 감정으로 노래를 지었건만 이국땅에서 조국과 고향이 그리워 부르는 동포들을 볼수록 나라를 빼앗은 일제놈들에 대한 원한과 증

오심이 더욱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1931년 봄, 도꾜에서 고학을 하며 창작활동을 벌리고있던 어느날 그는 조선에 갔다온 한 친구로부터 가슴뛰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인즉 백두산마루에 장군별이 높이 솟았는데 피끓는 조선의 젊은 용사들이 장군별두리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는것이였다. 그 친구는 두만강류역에 있는 친척집에 갔다가 들었다고 하면서 《백두산에 별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라는 노래를 들려주었다.

윤복진은 이 소식을 혼자만 알고있을수 없어 몇몇 친구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그들은 이미 알고있었다. 그들은 쉬쉬 하며 왜놈들의 귀에 들어가면 손에는 쇠고랑, 목에는 칼이 들어온다고 하면서도 신이 나서 수군거리는것이였다. 나래돋친 이 소식은 삽시에 도꾜와 요꼬하마 등 재일동포들이 살고있는 일본각지로 날아갔다.

윤복진의 가슴은 환희와 격정으로 설레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백두산장군별과 그 용사들을 찬양하는 동요를 써야겠다는 욕망이 불같이 일어났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눈덮인 산발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백두산에는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을가. 빨찌산들은 눈속에서 나무잎을 덮고 자며 풀뿌리로 끼니를 에우겠지. 그러자니 고생인들 오죽하랴.)

동요에 그들의 생활을 담고싶은 심정은 절절하였지만 당시 일제가 우리 겨레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고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까지 물샐틈없는 감시망을 펴놓고 출판물에 대한 감시에 미쳐날뛰고있는 조건에서 그는 어떻게 하면 놈들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넘길수 있는 백두산에 대한 동요를 쓸수 있을가 하고 오래동안 궁리하였다.

왜놈들을 속여넘기려면 상징과 은유의 수법으

로 써야 했다. 그러나 신통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 오래 신고하던 끝에 그는 백두산을 《흰눈 첩첩 저 산》으로 표현하고 우리 겨레가 애타게 갈망하는 희망의 날을 《꽃피는 새봄》으로 표현하기로 하였다. 잘만 쓰면 어린 독자들도 련상할수 있다는 신심이 생겼던것이다.

그렇다면 춥고추운 겨울에 누구보다도 꽃피는 새봄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앞장서서 날고있는것이 무엇일가. 나비? 하지만 나비는 너무 연약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옳지. 산새, 산새이다. 산에 사는 산새는 작아도 얼마나 강한가. 사나운 눈보라가 기승을 부려도 봄맞이뜻을 굽히지 않고 앞서 날며 노래를 부른다. 그래, 산새를 그리자. 그러면 독자들은 그 산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것이다. 그 산새는 바로 백두산의 산새, 장군별님의 용사들이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여 윤복진은 《산새는야 춥겠네》라는 제목을 달고 동요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산새는야 춥겠네
정말 춥겠네

흰눈 첩첩 저 산에서
어떻게 사나

산에 사는 저 새는
불새인가봐

여기까지 쓰고나서 《불새》라는 표현을 두고 오래동안 생각해보았다. 굳센 의지의 상징인 불새란 말을 써서 검열관놈들이 또 트집을 걸수 있었던것이다. 하고싶은 말을 속시원히 하지 못하고 빙빙 에돌면서 쓰자니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불새》라는 새의 이름을 놓고 거듭 생각해보던 그는 더 적중한 단어를 찾아낼수 없어 우리 나라 옛말에도 《불새》라는 말이 있으니 그대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산새는야 춥겠네
정말 춥겠네

꽃피는 새봄은
언제 오려나

기다리는 우리 봄아
어서 오려마

동요에서 《산새는야 춥겠네 정말 춥겠네》를 의도적으로 반복한것은 어린 독자들의 가슴속에 고생하는 산새의 표상을 강하게 새겨주자는데도 있었지만 놈들의 출판검열을 무사히 넘기자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동요가 신문지상에 발표되자 윤복진의 기쁨은 말할수 없이 컸다. 하지만 그는 그토록 쓰고싶던 백두산에 대한 동요를 은유적인 방법으로밖에 쓰지 못한것이 한스러웠다. 장군별님의 용사들을 뻐젓이 자랑스럽게 표현하지 못한 그는 망국노의 설음을 다시한번 통감하게 되였다.

그후에도 윤복진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지펴올리신 보천보의 불길이 온 삼천리강토를 붉게 물들였을 때 환희와 감격에 넘쳐 쓴 동요 《빛나는 사이다공패》(1937년)에서 항일유격대의 빛나는 위훈을 상징적인 사이다공패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반대하여 쓴 또 어떤 동요에서는 왜놈병정을 《누렁병정》으로 에둘러 표현하여 발표하였다.

윤복진이 눈물의 나라에서 눈물의 동요밖에 쓸수 없었던 그 시기 강도 일제는 조선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일체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제놈들의것으로 고칠것을 강박하였다.

윤복진은 1940년대에 들어와 유희동요 《솔잎침》을 마지막으로 발표하고 설음속에 쓰던 붓대마저 꺾지 않으면 안되였다.

작가로서 붓을 꺾는다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프고 괴로운 일이였으나 일본말과 일본글로 쓸바에는 차라리 자기 손으로 붓을 꺾는것이 오히

려 마음이 편했던것이다.

창작에서 물러난 그는 1943년 가을부터 강원도(당시) 화천군의 유령광산에서 일을 하며 어두운 귀틀집에서 은거생활을 하였다.

사랑하는 부모처자가 있는 고향을 멀리 떠나 홀로 살아야 했던 그 나날은 윤복진의 일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는 저녁이면 가물거리는 광솔불을 바라보며 (새봄아, 새봄아, 어서 오려마.) 하고 마음속으로 부르짖군 하였다.

드디여 고대하던 해방의 날은 왔다.

서울에서 8.15해방을 맞이한 윤복진은 다시 붓을 들고 창작의 길에 나섰다. 하지만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가 일제시기와 다름없이 진보적문학창작을 광란적으로 탄압해나서자 정의의 피가 끓던 그는 미제와 리승만역도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문화인대렬에서 인민들이 지향하고 요구하는 문학창작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러나 미군정하의 남조선에서는 지난날과 같

은 눈물의 동요밖에 창작할수 없다는것을 깨달은 그는 새 생활이 꽃펴나는 공화국북반부를 찾아 떠나간 박세영을 비롯한 문학예술인들이 부러웠다. 자기는 왜 그들과 함께 떠나지 못했는가 하는것이 생각할수록 안타까웠다.

(언제면 나도 공화국북반부로 갈수 있을가?)

1950년 가을, 그는 드디여 전쟁의 불구름을 헤치고 자나깨나 마음속에 그리던 공화국북반부를 향해 힘찬 걸음을 내디디게 되였다. 그는 걷고 또 걸었다. 윤복진이 우유부단했던 자신을 박차고 스스로 선택한 운명의 길은 그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하여주었던가.

한생을 꽃봉오리로 살고싶어

공화국의 품에 안긴 윤복진의 가슴은 한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끝없이 설레였다. 보고 듣는 모든것이 그대로 시였다.

그러나 막상 붓을 잡으면 웬 일인지 작품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되였을가?

어두운 눈물의 나라에서 헤매다가 갑자기 눈부신 웃음의 나라로 들어섰기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윤복진은 그때의 자기 심정을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어둠속에서 헤매던 소경이 눈을 뜬것과 같이 어리둥절해졌다. 나는 자기를 문학신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좋기만 하였다.》

이 시기부터 윤복진은 참된 삶과 진정한 문학창작의 길을 걷게 되였으며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는 개성이 뚜렷한 아동문학작가로 성장하게 되였다.

전화의 나날 윤복진은 군복을 입고 조선인민군의 어느 한 부문에서 사업하면서도 동요창작과 문학공부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책을 읽다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린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며 혁명선렬들의 뜻을 이어나갈 꽃봉오리들

이라고 하신 내용의 교시를 접하게 되였다.

혁명의 꽃봉오리! 이 얼마나 뜻깊은 말씀인가!

세상에는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장래를 생각하는 혁명가와 정치인, 유명한 문호들이 남긴 말이 적지 않지만 이런 명언은 찾아볼수 없다.

그때부터 그의 가슴속에는 《꽃봉오리》라는 표현이 깊이깊이 아로새겨졌다. 외워보면 그 뜻이 그대로 시로 안겨왔다. 이 표현을 잘 쓰면 좋은 동요가 될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무렵(1952년) 우리 나라에서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었지만 승리할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후대교육을 위한 새 교과서편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윤복진은 교과서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선발되였다. 그는 소학교 1학년용 음악교재의 첫머리에 넣을 동요를 창작하라는 영예로운 과업을 받게 되였다.

어떤 동요를 쓸것인가. 그는 늘 가슴속에 품고 있던 꽃봉오리에 대한 노래를 쓰기로 하였다.

김일성원수님
넓으신 품안에
자라나는 우리들은
새 조선의 꽃봉오리
우리모두 그 품안에
씩씩하게 자라지요

김일성원수님
따사론 품안에
방실 웃는 우리들은
새 조선의 꽃봉오리
우리모두 그 품안에
즐거웁게 배우지요

윤복진은 이렇게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끝없는 행복과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동요 《우리들은 꽃봉오리》에 담았다.

후날 윤복진은 지금 와서 이 동요를 보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좀더 아름답게 노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군 하지만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서 어린이들의 행복한 생활을 노래한 작품으로서 처음으로 쓴 동요이기때문에 각별히 사랑한다고, 두번째 처녀작이라고 은근히 자랑하군 하였다.

그후 30여년이 지난 1985년에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맞으며 이 작품의 자매편으로 볼수 있는 동요 《우리들은 당의 품에 피는 꽃송이》를 창작발표하였다.

동요에서는 새 세대 어린이들이 눈바람 사납게 휘몰아쳐도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혁명의 꽃송이로 붉게붉게 피여나는데 대하여 격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윤복진은 준엄한 전쟁시기에도 승리의 신심에 넘쳐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노래한 동요 《이 동네는 영웅동

네》, 《학교길》, 《기차놀이》(1952년)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성과 미제침략자들의 추악성을 그린 《미국놈병정 겁쟁이병정》, 《총알형제》(1951년), 《고추먹고 맴맴》(1952년) 등을 창작하였다.

풍자동요 《미국놈병정 겁쟁이병정》은 윤복진의 조국해방전쟁주제 작품창작에서 주목을 끄는 작품이다. 동요에서는 바스락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머리가 쭈빗, 다람쥐 보고도, 가을바람소리 듣고도 놀라 헛총질하는 겁쟁이병정 미국놈보초를 신랄히 풍자조소하면서 우리 인민군정찰병의 슬기롭고 용감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그의 창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은 동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이다. 이 동요는 그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동요는 윤복진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남조선에서 인민군대를 따라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오는 과정에 자기가 직접 체험한것을 기초로 하여 창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윤복진은 자기 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은혜로운 삶의 품인 공화국북반부로 들어오는 길은 미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불태우는 길이였고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익히는 길이였다. 비록 조국산천은 전쟁의 불길속에 휩싸여있긴 했지만 넓고넓은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고 높고낮은 산에는 푸른 숲이 설레이고있었다. 나는 해방후 불과 몇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몰라보게 달라진 마을과 도시를 경이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천리,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자 림진강하류에 있는 고랑도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다시 평양까지 걸었으니 내가 걸은 그 길은 2천리도 훨씬 넘는 머나먼 길이였다.

나는 멀고 험한 길을 걸으면서 오각별 빛나는 조국을 더 잘 알게 되였고 더욱 사랑하게 되였던것이다. 이 과정에 나의 가슴속에는 조국찬가

를 쓸수 있는 씨앗이 뿌리내렸다.》

동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는 이렇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다.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산에는 금은보화
바다엔 고기
넓고 푸른 들에는
오곡이 물결치는
원수님 세워주신
참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 나라
참 좋은 나라
누구나 다 일하고
글 잘 배우고
오각별 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나는

원수님 이끄시는
참 좋은 나라

이렇듯 동요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륭성번영하는 아름다운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례찬의 감정으로 되여있다.

동요에서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어머니조국의 아름다움을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그속에서 혁명의 후비대로 억세게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 자랑을 노래하였다. 그리하여 동요에는 누구나 다 일하고 배우며 오각별 공화국기 푸른 하늘 높이 휘날리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몸바쳐 싸울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굳은 결의가 흘러넘치고있다.

동요는 그 시기뿐아니라 오늘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가요로 전해지고있다.

전쟁의 포화가 멎은 후 윤복진은 왕성한 창작적열정을 가지고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동요들인 《시내물》, 《학습을 다하고서》(1954년)를 비롯하여 《내가 심은 복숭아》(1955년), 《검둥아 멍멍》(1956년), 《자랑찬 우리 평양》, 《꽃가마 들어온다》(1957년), 《림진강기슭에서》(1958년) 등에서는 미제를 물리치고 승리한 그 기세로 전후복구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의 벅찬 생활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생활과 결부시켜 생동하게 노래하고있다.

이 시기 창작된 동요 《시내물》은 작가의 창작적재능을 보여주는 특색있는 작품중의 하나이다.

동요에서는 시내물이 졸졸 노래하며 흘러간다는 서정적정황을 펼치면서 한굽이를 돌아드니 불탄 산에 새봄 왔다고, 또 한굽이 돌면 새 목장이 생겨나고 물방아 돌던 곳에 전기방아 새로 돌고 또 한굽이 돌면 새 학교가 우뚝 서고 또 한굽이 돌면 봄발갈이 한창인데 우르릉 뜨락또르 넓은 들을 갈아엎고 또 한굽이 돌고돌면 우

뚝우뚝 영웅도시 평양이 일떠선다고 하면서 폐허속에서 새 생활을 일떠세우는 전후복구건설의 영웅적현실을 생동한 시적화폭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노래하고있다.

동요 《학습을 다하고서》는 작가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공화국의 품에 안겨 받은 강한 창작적충동에 의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남조선에서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와보니 전쟁이 한창인데도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어린이들은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있었다. 어디 가나 학교가 있었고 아이들의 랑랑한 글소리, 노래소리가 그칠줄 모르고 들려왔다. 책보를 메고 학교길을 오고가는 학생들보고 너희들의 첫째가는 임무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조국을 위하여 공부를 잘하는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던 1952년 어느날이였다. 그는 평양교외에 있는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였다. 그 집에는 딸형제가 있었는데 맏딸은 소학교 1학년생이고 둘

째딸은 유치원생이였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와 마주앉아 회포를 나누는데 들창밖에서 이런 말소리가 들려왔다.

《언니야, 나하구 놀자.》

《안돼. 숙제를 아직 못다했어. 너 혼자 놀려무나.》

창밖을 내다보니 언니는 웃방에서 공부를 하고 동생은 혼자서 소꿉놀이를 하고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학습주제의 동요세계가 떠올랐다. 그날에 받은 충동으로 윤복진은 정전직후인 1954년에 《학습을 다하고서》를 창작하였다.

동요의 서정적주인공은 기껏해야 소학교 1학년생이다. 사실 꽃이 피고 새가 우짖는 봄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것없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계절이다.

작가는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의 생활에 먼저 찾아오는 이 아름다운 계절, 봄바람 솔솔 불어오는 날을 시적계기로 잡았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생은 천진하게도 봄놀이에 취해서 자꾸만 같이 놀자고 언니에게 졸라대지만 언니는 숙제공부 먼저 하고 놀아야 한다고 타이른다. 동요는 서정적주인공의 호소를 통하여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작품의 이 사상은 마지막련에서 잘 결속되고있다.

울긋불긋 꽃동산
꾸며놓고서
혼자서는 심심하여
언니보고 조르지요
정말정말 그만큼 공부하고
나구 둘이 꽃놀이 놀자요
오냐 그래 놀자꾸나
이젠 그래 놀자꾸나
학습을 다하고서
너구 나구 꽃놀이 놀자꾸나

이처럼 동요는 앞날의 훌륭한 일군이 되기 위

하여서는 꾸준히 학습하고 배워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확인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학습의욕과 학습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뿐아니라 작품은 동요문학의 새 양상을 개척하는데 기여한 특색있는 성과작의 하나로 되였다.

윤복진의 동요창작에서 전성기로 되는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이다. 이 시기 윤복진은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신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슴불태우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윤복진의 창작생활에서 유서깊은 만경대에서 진행한 현지생활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것은 만경대에 깃들어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어린시절이야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혁명사적내용들을 누구보다 먼저 들을수 있게 된 행운이였다.

윤복진은 어버이수령님의 삼촌어머님과 한집안식구처럼 가까이 지내면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

야 할 만경대의 혁명사적들을 수집정리하고 고증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그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였다. 그가 이 성스러운 사업을 스스로 맡아서 진행할수 있은것은 그만큼 자기를 품에 안아 키워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보답의 일념을 안고 노력하여왔기때문이였다. 하기에 그는 만경대현지체험작가로 있은 8년간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가슴깊이 새기고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노래한 동요동시집을 묶어내기 위한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만경대는 우리 고향》, 《무지개》, 《군함바위》, 《하얀 물동이》, 《만경대의 등잔불》을 비롯한 총 18편의 동요동시들을 수록한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를 세상에 내놓았다.

동요동시집은 어린 독자들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원수님 자라나신
아름다운 만경대

만경대는 내 고향
자랑많은 우리 고향

흘러가는 대동강
푸른 물도 노래해요

만경봉을 얼싸안고
춤을 추며 노래해요

원수님 자라나신
아름다운 만경대

만경대는 내 고향
자랑많은 우리 고향

푸른 하늘 종달새도
해만 뜨면 노래해요

만경봉을 날아돌며
하늘높이 노래해요

동요 《만경대는 우리 고향》은 보는바와 같이 어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는 혁명의 성지로서 우리 인민모두의 고향이라는것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노래하고있다.

만경대현지체험작가의 큰 행운을 지닌 윤복진만이 만경대를 노래한 동요를 내놓을수 있었다.

혁명의 성지에 내세워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신임이 없었더라면 그는 이런 큰 행운, 만경대 동요의 첫 시인으로서의 영예를 생각지도 못하였을것이다.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의 발표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하루는 뜻밖에도 바다건너에 있는 일본땅에서 한장의 편지가 날아왔다.

(나에게 온 편지가 옳긴 옳은가?)

그는 겉봉을 다시 살펴보았다. 자기에게 온 편지가 분명하였다. 보낸 사람의 이름을 들여다보며 그는 고개를 기웃거렸다.

(누굴가?)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읽고 난 그는 깜짝 놀랐다.

총련의 한덕수의장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에는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에 씌여있는 작가이름을 보고 대구에서 살던 옛동무 윤복진이 아닌가 해서 펜을 들었는데 맞으면 인차 회답을 보내달라는 사연이 씌여져있었다.

(아니, 그럼 중학시절에 나와 한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던 그 옛동무가 한덕수의장이란 말인가!)

윤복진은 그날 밤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를 품에 꼭 껴안고 오래동안 잠들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인 아름다운 만경대의 노래야! 너는 나의 학창시절 옛동무를 만나볼수 있는 꽃다리까지 놓아주는구나. 고맙다!)

그가 쓴 회답편지는 인차 한덕수의장앞으로 날아갔다. 그후 그는 조국을 방문한 한덕수의장

과 뜻깊은 상봉을 하게 되였다.

그들은 얼싸안고 감개무량하여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윽고 머리를 맞대고 앉아 축배잔을 나누며 아득히 흘러가버린 어린시절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도 흘러 어느덧 헤여질 때가 되였다. 다시한번 얼싸안고나서 윤복진이 그 자리를 떠나 뜨그나 나왔을 때였다.

갑자기 등뒤에서 급히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복진아, 복진이! 이리 오라구.》

돌아보니 한덕수의장이 뒤따라오며 오라고 손짓을 하고있었다. 웬 일인가 해서 다시 들어가니 한덕수의장이 깜빡 잊을번 하였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처럼 서로 키대보기를 하자고 하는것이였다.

그들은 돌아서서 등을 맞대고 키대보기를 하였다. 그들의 입에서는 약속이나 한듯이 어린시절에 부르던 동요가 흘러나왔다.

누가 키가 더 큰가
어디 한번 대보자
올라서면 안된다
발을 들면 안된다
똑같구나 똑같애
래일 다시 대보자

한덕수의장은 키대보기를 하고나서 아무래도 자기가 좀더 크다고 하면서 어렸을 때처럼 두어깨를 으쓱거렸다. 윤복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하였다.

이때부터 그들사이에는 자주 편지가 오고갔다. 윤복진은 새로 출판한 자기의 동요동시집 《시내물》을 보내고 한덕수의장은 자기가 쓴 가사와 시들을 보내며 의견을 달라고 하였다.

총련에도 유명한 작가들이 있는데 한덕수의장이 왜서 윤복진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였는가.

한덕수의장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 자네야말로 고지식한 인간이여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고 사실그대로 말해줄 사람이기때문일세.》

이것은 윤복진의 인간됨을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인것이다.

동요동시집 《아름다운 만경대》를 발표한 후 윤복진의 생각은 깊어졌다. 어떻게 하면 유서깊은 만경대의 이야기를 어린 독자들이 더 잘 알게 할수 있을가. 동요동시만으로서는 만경대에 깃든 이야기를 깊이있게 쓸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문으로 쓰기로 하였다.

그는 한줄두줄 심혈을 기울여 장편실화문학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이야기》(1962년)를 집필하여 발표하였다.

장편실화문학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이야기》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만경대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민족의 태양으로 자라나신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왜놈들과 싸우시던 아버님 김형직선생님께서 놈들에게 체포되시였다는 가슴아픈 소식

을 받으시고 조선이 독립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 다지시며 사랑하는 고향 만경대를 떠나신 이야기, 아버님께서 다하시지 못한 조선독립의 큰뜻을 자신께서 기어이 이어나가실 결심을 다지시는 이야기를 력사적사실자료에 기초하여 생동하게 서술하고있다.

장편실화문학은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풍모를 통하여 학생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만경대현지체험을 마친 윤복진은 1964년부터 1979년까지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현역작가로 있으면서 창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였다. 이 기간은 우리 아동문학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서 전면적으로 개화발전된 뜻깊은 나날이였다.

윤복진은 불타는 열정을 안고 만경대현지체험기간에 가슴에 새긴 어버이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노래한 동요 《만경봉에서》(1967년), 《학습터에서》, 《해도 해도 뜨기 전에》(1978년)와 《봉화

리의 배나무》, 《아름다운 삼지연》, 《사랑의 보금자리》를 비롯한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일가분들의 고매한 풍모를 그린 작품들을 계속 창작하였다.

이밖에도 그는 동요 《소년단림 고운 새》(1968년), 《꽃침대》, 《꽃피는 산골마을》(1975년) 등 학생소년들의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조국통일주제 등 다양한 내용의 동요들을 창작발표하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송가창작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였다. 그는 장군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을 노래한 수십여편의 동요동시들을 창작하여 우리 아동시인들이 해마다 묶어온 동요동시집 《온 나라 꽃봉오리 영광드려요》(1—10)에 꼭꼭 넣군 하였다.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동요 《우리들은 당의 품에 피는 꽃송이》, 《백두산고향집》, 《은방울꽃》, 《맑은 하늘》 등을 들수 있다.

윤복진은 년로한 몸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1980년부터 자택에서 창작생활을 하게 되였다.

그가 집에 들어가서도 쉬지 않고 언제나 책상앞에 마주앉아 책을 읽거나 동요창작에 열중하는것을 보고 젊은 시인들이 윤복진에게 년로한 몸에 건강치도 못한데 어떻게 왕성하게 글을 쓰는가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의 헤아릴수 없이 은정깊고 뜨거운 사랑은 영원한 청춘과 창조의 생명력을 주는 장생불로약입니다. 이 불로약을 받아안은 사람은 결코 로쇠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일흔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은 청춘입니다. 청춘이란 말은 결코 젊은 나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밝혀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체문학의 큰길을 힘차게 걸으며 우리 시대 꽃봉오리들의 행복넘치는 노래를 쓰고 또 쓰렵니다.》

그는 이런 열정을 안고 어느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다.

동요 《백두산》(1983년)은 이 나날에 쓴 우수한 작품중의 하나이다.

산 산 백두산
구름우에 솟은 산
지도자선생님
탄생하신 백두산
…

산 산 백두산
하늘끝에 솟은 산
지도자선생님
자라나신 백두산
…

동요는 생략과 함축의 수법을 재치있게 활용하면서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자랑높은 산이라는 작품의 심오한 사상을 밝히고있다.

윤복진은 이외에도 동요 《착하신 마음》을 비롯하여 어린시절 위대한 장군님의 고매한 풍모를 노래한 아동시가작품들을 수많이 창작

하였다.

윤복진은 1980년대 후반기 병석에 누워서도 아동문학작가의 사명감을 잊지 않고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동요 《저 하늘이 멀고멀어도》(1986년)는 작가가 병환속에서 창작한 성과작이다. 동요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과 아동들의 생활을 동심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한없는 사랑을 감명깊게 노래하고 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동심을 생동하게 노래한 동요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여 출판되였다.

참으로 윤복진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의 품속에서 자기의 창작적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 삶을 빛내인 아동문학작가로서 오랜 창작생활기간 2 000여편의 우수한 동요, 동시들을 창작하여 어린이들의 사상교양과 우리

나라 현대동요문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동요할아버지》였다.

그의 삶은 영원하다

아무리 《작고도 큰 문학》이라고 하여도 동요는 역시 모래알과 같다. 어떻게 두터운 장중편소설이나 서사시와 비길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일부 사람들과 성인작가들속에서는 은근히 동요문학을 차요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 영향을 받아 몇몇 젊은 아동시인들은 한평생 동요나 써서는 크게 성공할수 없다고 생각하며 긍지감을 가지지 못하고 성인시문학을 넘보거나 지어는 방향전환까지 하였다.

그때마다 윤복진은 《요란한 명성을 꿈꾸는 아동시인은 좋은 동요를 쓸수 없습니다. 자기를 소학교, 중학교 교원이라고 생각하고 동요를 써야 합니다.》라고 말하군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조에는 동요를 사랑하

는 마음이 깃들어있긴 하였지만 동요문학에 대한 그릇된 경향을 론박하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지 못했기때문에 젊은 작가들의 심장을 크게 공감시키지 못했다.

그러했던 그가 어떻게 되여 문학의 높은 단상에 자기의 동요를 안고 당당히 오를수 있었던가. 누가 그의 창작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세상만복을 다 안겨주었으며 누가 그를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 영원한 삶을 누릴수 있게 하여주었던가.

그이는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그는 나이가 들어도 늙음을 모르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좋은 동요들을 련이어 창작할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와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을 수여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일흔고개에 들어서게 되자 가

정에서는 부인과 아들, 며느리가 모여앉아 70돐 생일상을 차릴 의논을 하고있었다.

이것을 알게 된 윤복진은 공연한 걱정들을 한다고 하면서 식구들에게 70돐생일에 대한 말을 밖에 나가서는 일체 하지 말도록 하며 집안식구끼리 조용히 쇠는것으로 토의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70돐생일상을 보내주시고 그의 가슴에 또다시 국기훈장 제1급과 사랑어린 보청기까지 안겨주실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그의 집에서는 큰 경사가 났다. 아래웃방이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붐비였다. 로작가들은 어서 새옷을 입고 사랑의 생일상이 차려져있는 아래방으로 내려가자고 그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윤복진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장군님, 이 몸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듯 분에 넘치는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십니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제가 만일 저 남녘땅에 있었다면 이미 무주고혼이 되였을것입니다.

… 이 사랑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동요창작의 붓을 더 힘껏 틀어쥐겠습니다.》

이어 며느리가 술을 붓고 아들이 그 잔을 아버지에게 드리였다.

이제는 다 자라서 어엿한 일군이 된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다가 윤복진은 《오냐, 고맙다. …》 하며 다시 눈굽을 적시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그 순간 그는 남녘땅에 두고 온 혈육을 생각하였던것이다.

어떻게 잊을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도 한생을 동요창작에 바쳐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시고 온 나라 어린이들이 다 아는 그가 민족분렬의 력사와 함께 그처럼 불행을 안고 가슴의 한쪽구석이 그늘져있는줄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많지 못할것이다.

며칠후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보청기를 끼고 창작실로 나갔다. 책상앞에만 앉아있을

수 없어 그는 대동강가로 나갔다. 련광정을 안고 도는 유보도를 거니는 그의 귀에는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잔물결소리도, 꽃잎사이로 날아도는 꿀벌들의 나지막한 붕붕 소리도 크게 들렸다.

한편 그 시각에 창작실에서는 한 녀류아동시인이 책상에 마주앉아 동시 《사랑의 보청기》를 쓰고있었다.

《쉬쉬, 이젠 이젠 우리 할아버지 들으신다》라는 인상적인 구절로 엮어진 동시에서는 사랑의 보청기를 보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은정이 동심적으로 재미있게 노래되여있었다.

녀류아동시인은 《동요할아버지》가 들어오자 자기의 동시를 소리높이 읊었다.

그러자 윤복진은 《아이구, 귀청이 떨어지겠다. 왜 그렇게 큰소리로 읊노.》 하고 웃으면서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담은 좋은 동시를 써주어 고맙다고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윤복진에게 돌려주신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생일 80돐을 계기로 조선아동문학발전에 많은 공로를 세운 작가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면서 공화국의 최고영예상인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 건강이 좋지 못한 그가 즉시 치료를 받을수 있는 대책까지 다 세워주시였다.

그날 밤 윤복진의 집창가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윤복진은 원고지를 정히 펴놓고 한자두자 정성을 담아 수기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큰절을 드리며》를 썼다.

그가 쓴 수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나의 참된 삶의 첫걸음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겨 비로소 시작되였다.

…

일제식민지학정에서 피멍이 들고 남조선에서 미제의 악독한 구두발에 응혈졌던 나의 가슴에 흘러든 사랑의 해빛, 그것은 진정한 재생의 봄

빛이였다. …》

그 이튿날 이른아침에 윤복진은 꽃다발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만수대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감사의 큰절을 드리였다.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에 천만분의 하나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다시 젊어진 심장과 밝아진 귀로 동요창작에 자기의 여생을 고스란히 바쳤다.

설음의 시, 눈물의 동요로부터 창작의 걸음을 내디딘 후 우리 나라 동요문학창작의 대표자의 한사람으로 성장한 《동요할아버지》 윤복진은 1990년대초에 들어서면서 자주 병석에 누워 운신하기 어려워하였다. 80고령에 이르자 로환이 그의 정신적인 지향을 무시로 방해하여나섰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마음껏 자라는 어린이들의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동요에 담아 끝없이 노래하고싶었으나 로쇠한 육체가 자꾸만 그 간절한 마음을 막군 하여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운명의 마지막시각을 보내고있음을 깨달은 그는 있는 기력을 다 모아 펜을 가누어쥐고 또박또박 한생의 마지막글자들을 쪼아박아나갔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 통일되면 고향에도 가보고 장군님께 올릴 통일동요를 짓고싶었는데 못 드리고 갑니다.》

이렇게 쓰고 마지막점까지 찍고난 그는 펜을 떨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한생을 동요의 세계에서 산 윤복진은 80고령 생애의 마지막시각에도 동요창작의 소원을 절세의 위인들앞에 아뢰며 숨을 거두었다.

그는 한생의 마감도 통일동요창작의 지향속에서 마치였던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윤복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아동문학계의 사랑하는 재사를 잃은것을 못내 애석해하시면서 그의 장례를 잘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와 영결하러 찾아온 조객들은 눈처럼 하얀

화환들속에 웃으며 누워있는듯 한 《동요할아버지》를 눈물속에 바라보며 태양의 품에 말겨진 그의 삶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금치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덕분에 윤선생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나라 《동요할아버지》로 불리우며 꽃봉오리들과 함께 살게 될겁니다.)

이것이 조객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조선속담(1)

날이 추워진 다음에야 소나무의 절개를 안다

겨울이 다되여 다른 나무들의 푸른 잎들이 전부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서 사람은 어려운 고비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는 말.

송죽같은 절개는 엄동설한에야 안다

사람의 굳은 절개는 소나무와 참대가 엄혹한 겨울 눈서리와 추위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듯이 시련과 고초를 겪어보아야 알수 있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

기행련시

소나무삼천리

김 윤 식

나는 이 땅에서 태여나 마흔해가
  넘도록
이 산천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자란
  조선사람
내 나라의 맑은 하늘 우러러 억세게
  자라는
푸르른 소나무를 한없이 사랑한다

조선의 기상 온 누리에 떨치며
내 나라의 국수로 푸르러 설레이는
  소나무여
네 뿌리내린 대지—삼천리조국땅을
노래에 담아 자랑하고저 나는 편답의
  길 떠나노라

1. 백 두 송

백두대산줄기 장엄하게 뻗어내린
여기 유서깊은 항일의 전구
사연많은 한그루 소나무앞에
나는 지금 서있다

천리수해를 스쳐오는 저 바람소리엔
금시라도 원쑤격멸의 우렁찬 총성 들려올듯
천고의 이 밀림속에 말없이 서있어도
너 얼마나 자랑찬 력사를 간직한것이냐

아름드리 거목에 힘있게 새겨진 글발
《조선아, 자랑하자 백두산에 솟은 태양
아, 3대통운 만만세!》

가슴에 솟구치는 환희여 격정이여
반만년력사에 처음 모신 절세위인들 우러러

목청껏 터친 민족의 환호성
세월의 눈비바람 이겨내며 고이 간직한
장하고 절개굳은 너 소나무여

나라는 있어도 빛내줄 위인이 없고
강토는 있어도 지켜줄 주인이 없어
바다건너 기여든 섬오랑캐들의 도끼날이
무참히 번뜩일 때 너희들이 흘린것은
과연 송진이였더냐—그것은 그것은
나라잃은 설음의 진한 피눈물이였다!

허나 태양의 해빛받은
그때부터 너는 한낱 말 못하는 초목이
아니였다
너는 참다운 위인을 모셔야
산천도 빛난다는 진리를 새겨주며
오늘도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새겨주는
력사의 증견자!

이 땅에 뜨겁게 스며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
만고풍상의 그 자욱 후손만대 길이 전하며
푸르러 끝없이 설레이는 너를
나는 백두송이라 존경담아 부르고싶구나

오 백두송, 백두송!
이 나라 소나무들의 맨 첫자리에
거연히 서있는 나무여!

2. 남산의 소나무는 오늘도 푸르다

온 세상 사람들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만경대고향집 뜨락에 서니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는
오늘도 청청 푸르고나

귀전에 숭엄히 들려오누나
눈은 내려 강산은 온통 흰빛인데
사나운 폭풍에도 끄떡없는

그 모습 바라보시며
김형직선생님 한구절한구절 지으시던
《남산의 푸른 소나무》노래소리가

너희들은 보았으리라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지원》의 큰뜻 품으시고
결연히 고향을 떠나시던
선생님의 그 모습

아버님 걸으시던 력사의 새벽길 이어
나라찾는 싸움길에 오르시던
수령님의 위대한 그 영상을!

아버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
품에 소중히 안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헤치시여
돌아오신 수령님을
와락 부둥켜 안으시며

목메여 하시던 할머님의 그 말씀도
너희들은 들었으리라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다 두고 너
  혼자만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오, 남산의 푸르른 소나무여
너의 장엄한 그 기상도
만경대가문의 애국정신을 그대로 닮은것
너의 그 변함없는 절개도
만경대가문의 억센 의지가 그대로 비낀것

그렇다! 만경대혁명일가의 그 정신,
불멸의 그 업적 길이길이 전하며
락엽을 모르는 소나무처럼
애국의 한모습 변치 말라 속삭여주며
남산의 소나무는 오늘도 푸르다
푸르러 설레인다!

3. 동명왕릉이 전하는 이야기

동방의 천년강국 옛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룡산기슭 푸른 송림 우거진 곳에
웅건히 자리잡은 여기 동명왕릉!

전화의 불비가 멎은 어느해
이곳을 찾아오신 수령님 말씀하셨어라
일제놈들이 도굴하고 미제가 불태운 이곳을
고구려의 시조왕릉답게 잘 꾸리자고

신기하구나 왕릉을 향해 공손히
좌우로 머리숙인 저 소나무들
허나 더 신기한것은 우리 수령님 친필하신
《동명왕릉개건기념비》앞에
숙연히 머리숙인 소나무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민족의 유산 한없이 귀중히 여기신 수령님
전화의 불길이 강산을 덮었던 그때
군대에 나간 산림보호원들과 대학생들을
소환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던 이 왕릉터를
웅장하게 개건해주신 그 업적
천백마디 말과 글로도 다 칭송할수 없기에
너도 숙연히 머리숙였는가
동명왕릉의 력사깊은 소나무숲이여

정녕 그이가 계셨기에
끊길번 한 민족사가 굳건히 이어졌고
저 아름드리 소나무들도
세월의 풍상을 이겨내며 꿋꿋이 설레나니

내 지금 여기 왕릉앞에서
찾아오는 사람들 마음속에 굽이치는
격정의 목소리 똑똑히 듣노니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찬란히 빛내주신
　김일성주석님!
그분은 애국의 최고화신,
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시여라!》

4. 금강의 《배지향일송》

천하절승 예로구나
금강산의 일만 이천봉
골마다 수정같이 맑은 물
폭포수로 흘러내리고
갖가지 기암괴석 곳곳에 솟아
저마다 제 모습 자랑하는데

만물상, 구룡연…
즐거운 탐승길에서 터져오르는 가벼운 탄성!
아, 저 나무들이 옛 조상들 그리도
　칭송하던
《배지향일송》 아닌가!

아찔한 절벽, 날새들도 깃을 펴기 저어하는
깎아지른 벼랑바위짬에 억척같이 뿌리내리고
청청한 가지 흐느적이는 락락장송아!
땅을 등지고 오로지 해님만을 향한
　소나무야!

아침마다 티 한점 없이 맑은 이슬 함뿍
　머금고
솟는 해를 남먼저 맞이하는 너
사나운 광풍 휘몰아치는 겨울에도
머리우에 흰눈 떠이고서
푸른빛 잃지 않는 너

저기 신계동골짜기 창터솔밭에
하늘이 보이잖게 울창한 미인소나무들도
　장관이고
삼일포 호수가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그 소나무들도 황홀하건만
네 억세고 장한 모습엔 비길바 아니거니

풍치좋은 바다가, 양지바른 산기슭이
  좋은줄이야
너 어이 모르랴만
굳이 저 벼랑턱에 뿌리내린 그 뜻
너 없는 금강산의 경치야 생각도 못하려니
아, 기특하고 고맙구나
땅을 가리지 않은 금강의 소나무야

오, 금강의 《배지향일송》!
오로지 해님만을 우러러
층암절벽 높은 곳에 푸른 머리 추켜들고
  설레이는 너처럼
키워준 조국에 의리를 다할줄 아는
이 나라의 아들딸로 우리 살리라

5. 송도원

동해의 푸른 물과
어쩌면 이리도 잘 어울리는가

명사십리 백사장엔 해당화 곱게 웃는데
가없이 펼쳐진 소나무숲우엔
흰갈매기 너울너울 날아예는 송도원

철석 처절썩— 물갈기 날리며 파도는
  달려오고
그러면 솨— 솨— 화답하는 숲의
  설레임소리
심신에 가득 차오르는 신선한 솔향기
아, 이 아름다운 나라에 태여나
주인으로 사는 가슴벅찬 행복이여!

송도원이여 너는 이야기하느냐
하늘땅이 불타던 전화의 그날
너의 푸른 숲을 목숨바쳐 지켜싸운 영웅들
고난의 그 어렵던 나날에도
한그루 애솔포기조차 다치지 않은
이 고장 사람들의 그 고운 마음씨

아침이면 저기 국제소년단야영소
랑랑한 나팔소리 네우에 울려퍼지고
해종일 웃음소리 노래소리 네 품에서
　떠날줄 모르고
저녁이면 달빛 은은한 소나무그늘아래
젊은이들은 다정히 사랑을 속삭이거니

아득한 옛적부터 동해의 명승으로
네 이름 자랑높았다지만
폭풍쳐도 눈비와도 변색을 모르는 네
　모양은
로동당의 해빛아래 더 순결해지고 굳세여진
이 나라 사람들의 모습만 같아
더더욱 청청하고 눈부시구나

오, 아름다워서만 조국을 사랑하는가
삶의 뿌리 내려준 이 땅,
귀중한 조국을 떠받드는 거목이 되라
끝없는 서정의 노래 우리에게 불러주는

송도원의 소나무숲
동해기슭의 푸른 옷 입은 합창단이여!

6. 판문점에서

삼천리가 아니였구나
판문점의 소나무여
한지맥으로 련련히 뻗은 이 땅에서
소나무뿌리도 쉽게 건너갈수 있는
저 원한의 분계선을
온 겨레가 넘지를 못해서

장장 70년을 겪어야 하는 이 비극을 안고
너도 몸부림치느냐
백두산에서 시작한 나의 기행길이
여기서 정녕 끝나야 한단 말이냐

내 조국의 절반땅 저 남녘에도
소나무는 우거졌으리
허나 양키들의 군화에 짓밟혀

푸른빛 잃었으리 생기 또한 빼앗겼으리
그 땅의 소나무들은

이 시각도 남녘의 소나무들의 울부짖음소리
신음소리 귀전에 들려오는듯
오, 삼천리가 하나되는 통일의 그날
우리는 북과 남의 소나무가지들로
경축의 솔문 하늘높이 만들어 세우고
온 세상이 보란듯 춤추며 들어서리

기다려다오 저기 태백산이며 다도해,
제주도의 소나무들이여!
그날엔 내 너희들을 가슴에 그러안고
오늘에 다 부르지 못했던 소나무노래,
끊어졌던 소나무삼천리의 노래를
다시 쓰고 또 쓰리라!

《백의민족》이라는 말의 유 래

《백의민족》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흰색을 숭상하면서 흰옷을 즐겨 입었던 우리 민족에 대한 또 다른 부름말이다.

옛 력사책에는 부여에서 《흰옷을 숭상한다.》고 씌여있으며 7세기에 편찬된 이웃 나라의 옛 력사책인 《수서》에서도 조선민족이 흰옷을 좋아한다고 기록되여있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흰옷을 입는것이 그대로 이어졌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의 풍습처럼 되여왔다.

그러다나니 우리 나라를 다녀간 많은 외국인들도 조선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있는데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쓰고있다.

도이췰란드의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조선려행기

에서 《옷감색은 남자나 녀자나 다 희다.》고 썼으며 프랑스사람 라게리도 《모든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있다.》고 하였다.

일제강점시기인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은 마치 솜밭같이 희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 옷풍습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민족고유의 옷인 흰색의 바지와 치마, 저고리 등만을 입은것은 우선 단군을 시조로 한 단일민족의 민족성과 관련된다.

우리 조상들은 흰색을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색으로, 단군을 숭상하는 색으로 여겼으므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언제나 흰옷을 입고 흰떡, 흰밥을 내놓았으며 이 습관이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져 전통화되게 되였다.

우리 민족이 흰옷을 좋아하게 된것은 또한 깨끗하고 순결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관련된다.

정결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은 1년 4계절

항상 깨끗이 빤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특히 무명이 옷감으로 널리 리용되면서 무명의 순수한 흰색을 좋아하여 흰 무명옷을 즐겨 입게 되였다. 그 과정에 흰옷을 입는 풍습이 더욱 굳어졌다.

조선속담(2)

겨울이 되여야 솔이 푸른줄 안다 [솔이 푸른것은 겨울에 가봐야 안다, 세한연후(歲寒然後) 송백(松栢)의 절(節)을 알고 국난지시(國難之時)에 렬사의 충심(忠心)을 안다.]

한여름에 우거졌던 푸른 잎이 다 떨어지고 산과 들에 흰눈이 뒤덮인 겨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나무가 푸른줄을 안다는 뜻으로서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사람의 진속을 알수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

세한연후(歲寒然後)에 지송백지절(知松栢之節)이라

설 전후의 추위때 한겨울 추위라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변함없는 푸름을 알게 된다는 뜻으로서 어려운 고비에서 굳은 절개, 높은 지조를 알게 된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며 청송록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할가

굳은 절개 절대로 변할수 없음을 형상적으로 이르는 말.

시조

금강산과 소나무

김 영 일

소나무가 없으면 금강산이 아니다

금강산 가는 길
온정리 길가운데의 소나무
그 모습 기묘하고
그 기상 름름하여 발길 못 떼는데

지나가던 사람들 자랑스럽게 말하네
온정리의 《왕》소나무라고
듣고보니 참 그럴만도 하구나
《왕》소나무!

내 가슴에 조국의 모습처럼 안겨지네
온정리의 《왕》소나무여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숭상해왔지

소나무는 초목중의 군자라고
민족의 정기안은 나무이라고

그래서 아니였던가
어버이수령님
금강산은 봉우리도 유명하지만
소나무가 없으면 볼품이 없다고

아! 금강산이 소나무를 안았는가
소나무가 금강산을 품었는가
소나무와 금강산
금강산과 소나무
소나무가 없으면 금강산이 아니다

창터솔밭

구룡연 오르는 길
왼쪽으로 무연히 펼쳐진 솔밭
푸른 아지 하늘을 덮었는데
여기를 창터솔밭이라 한다네

임진조국전쟁시기
활과 창, 식량을 저장해두었다는 자리
소나무들 조화를 부려서인가
왜적들은 눈뜬 장님이 되였다네

그때부터였던가
소나무는 그 기상이 씩씩하기도 하지만
그 기질 또한 령험하기도 하여
침략자들을 알아본다는 신비한 이야기
소나무를 민족의 수호수로 불러왔다네

금강산의 소나무는 왜 푸른가

세존봉
그 천연바위우의 소나무들
너무도 그 빛갈 푸르고 푸르러
내 마음도 청산이 되는듯싶네

절승경개에 취해있는

내 마음속에
숭엄히 안겨오는 글발
《지원》

대를 이어서라도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지원》의 높은 뜻
만경대일가의 그 신념 어린
남산의 푸른 소나무 예 솟았느냐

남산의 푸른 소나무 안으시고
수령님 혈전만리 헤치시였네
그 소나무 넋을 지니시고
장군님 내 조국의 기상 떨치셨네

민족번영의 새시대
푸르른 소나무 기상처럼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남산의 소나무 후손만대 푸르고
남산의 소나무처럼
금강의 소나무 세월 이어 푸르리라

금강산의 《첫눈》

가을이면
삼일포의 솔섬에 날아든다
눈이 내리듯
백학이 하얗게 소나무아지들을 덮는다

새도 자기가 앉고싶은 곳에 앉는다고
소나무의 그 억센 기상
그 청신함, 그 고결함에 끌려
백학은 소나무에만 내리네
금강산의 《첫눈》이 여기에 내린다

소나무는 계절을 모른다

봄날의 해빛받아
진귀한 보석과도 같이 빛을 뿌리는
기묘한 봉우리들
봄의 금강산은 그대로 금강산

여름이면
기암절벽을 휘감은 흰구름
계곡마다 온갖 꽃 만발하고 울창한 록음
그래서 그 이름도 봉래산

가을이면
단풍이 타는듯 붉고
하늘이 높아갈수록 더욱 불타는 단풍
가을의 금강산은 풍악산

겨울철의 금강산
온 천지가 흰눈으로 뒤덮이여
특이한 경치가 장관을 이룬다고
겨울의 금강산은 개골산

계절마다
금강산을 부르는 그 이름 달라지는데
나는 물어보고싶다
금강산의 사계절에
계절마다 달라지는것이 없는가고

그러면 대답한다
사계절모두가
소나무가 자기들의 유혹에도 끄덕없다고
언제나 푸르러있다고

피바위의 소나무

금강산 탐승길
지상의 기묘함이 여기 다 있는가
걸음걸음 보는 곳마다
즐거운 웃음꽃이 덮이누나

삼일포에 이르니
맑은 물결 설레이며 반기고
단풍관이 바라보이는 산정의 바위들
우리의 눈길을 잡네

바위가 참 묘하게 생겼네
바위우에 바위가 놓였구나

그옆의 소나무를 좀 보라구
바위에 인사를 하고있는것 같질 않나

웃고 떠드는 우리를 보며
강사처녀 조용히 말하네
소나무가 인사를 하고있다고
저 바위를 피바위라고 부른다고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 저 바위우에서
모진 고문속에서도 신념 버리지 않은
수많은 애국자들 학살하였다네

아! 삼일포 피바위의 소나무야
그래서 너의 줄기는 피빛이구나
죽어도 신념 버리지 않은
이 나라 애국자들 그 넋이 어려
너는 사시장철 푸르른것이 아니더냐

금강산 철길의 소나무

금강산청년역을 지나
저 멀리 남쪽으로 뻗어간 두줄기 철길
기적소리 목터지게 울리며
북남의 첫 손님들을 싣고 렬차는
  달렸겠지

그날이 언제였던가
두줄기 철길우에는 녹이 쓸었다
분렬의 아픔에 몸부림치는 겨레의 마음
그 마음의 앙금인양

두줄기 철길을 굽어보며
어제도 오늘도 서있는 소나무
하많은 분렬의 설음을 보아오며
묵묵히 서있는 소나무야

너는 믿고있는것 아니냐
두줄기 철길의 녹을 쓸어내고
기어이 달려갈 통일렬차의 기적소리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마음담아
너는 푸르구나 통일을 믿어

별금강의 소나무

금강산을 한눈에 볼수 있게
조물주가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별금강
천연바위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한그루의 소나무가 서있네

아니였다
그 소나무는
그 바위우에 억센 뿌리를 내려
그 천연바위를 깨뜨렸구나

기암괴석도 천태만상

금강의 소나무도 각양각색이지만
너무도 기이하고 경이롭구나
별금강의 이 소나무는

강의하구나
소나무야 너의 그 기질
장엄하여라
소나무야 너의 그 모습은

분렬의 장벽을 부시고
겨레의 통일을 이룰 민족의 기상을 안고
너는 여기에 서있구나
별금강의 소나무야

작가일화

《황제페하도 법에 걸어야 하지 않을가요?》

어느날 로씨야작가 고골리는 뻬쩨르부르그시 경찰국장의 호출을 받았다. 틀림없이 탐관오리들을 폭로풍자한 희곡 《검찰관》때문일것이라고 짐작한 그는 《부정부패를 척결할데 대하여》라는 황제의 칙령이 실린 신문을 찾아내여 품속에 찌른 후 경찰국으로 갔다. 아니나다를가 그를 만난 경찰국장은 《검찰관》을 당신이 썼는가고 따지면서 로씨야를 모독한 죄로 기소하겠다고 을러멨다.

《아니, 내가 신성한 로씨야를 모독하다니요?》

《그래 로씨야관리를 모욕하고 조롱한것이 로씨야모독죄가 아니란 말이요? 그런 자유를 누가 주었는가?》

《나도 로씨야의 작가요. 우리의 로씨야를 좀먹고 병들게 하는 관리들을 비판하는것은 로씨야작가들의 권리요.》

고골리는 만만치 않게 응수하였다.

《뭐라구? 그래 당신은 로씨야관리들을 모욕하고 짜리제도를 중상한 죄를 인정할수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 좋소. 우리는 당신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수밖에 없소.》

고골리는 사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는것을 알고 수를 바꾸었다.

《국장나리, 그러면 이 글을 쓰도록 나를 충동한 사람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해야 하겠지요?》

국장은 그의 말에 구미가 당긴듯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물었다.

《그래 그게 누구요?》

《니꼴라이황제폐하요.》

《뭣이? 황제폐하께서? 여보, 허튼수작을 마시오.》

국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황제페하가 아니였던들 나는 <검찰관>을 쓰지 못했을거요.》

《페하께서 쓰라고 했단 말이요?》

《국장나리, 그래 당신은 페하께서 내린 칙령을 모르단 말이요?》

《페하의 칙령? 칙령에 그런 글을 쓰라고 했단 말이요?》

《그렇소. 페하의 칙령이 나로 하여금 그런 글을 쓰게 했소.》

《함부로 페하를 모욕하지 마시오. 페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란 말이요.》

고골리는 품속에서 신문을 꺼내들고 자기가 페하의 칙령을 읽어줄터이니 귀담아들어주기 바란다고 하면서 다음의 한대목을 소리내여 읽었다.

《로씨야를 좀먹는 탐관오리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그들의 부정부패를 엄격히 척결할지

어다.》

물론 이 칙령은 온갖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일소할것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항의를 누잦혀보려고 황제가 꾸며낸것이였다.

《국장나리, 들으셨지요? 나는 우리 로씨야가 건전하기를 바라는 폐하의 령을 받들고 <검찰관>을 쓴거요.》

그의 당당한 말에 기가 질린 국장은 《폐하를 걸지 마시오.》라는 외마디비명을 질렀다.

《국장나리, 나를 법으로 다스리겠거든 <검찰관>을 쓰도록 추동한 황제폐하도 법에 걸어야 하지 않을가요?》

고골리의 계속되는 야유에 국장은 어쩔줄을 몰라하며 허둥거렸다.

《자, 난 가겠소. 똑똑히 알아두시오. 진짜 범인은 내가 아니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난 고골리는 황제의 칙령이 실린 신문을 책상우에 놓은채 유유히 경찰국장방을 나섰다.

새 책 소 개

최근 평양출판사에서는 장편소설 《대대앞으로》(류원규 작)를 출판발행하였다.

소설은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미국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당국자들의 동족대결책동에 항거하여 《국군》 대대가 공화국북반부로 용약 의거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총대가 약한탓에 망국노의 설음을 겪어야 했던 주인공인 표무강이 파란곡절의 운명을 통하여 외세가 쥐여준 총은 민족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온갖 불행과 화근을 가져다줄뿐이며 자주의 총대야말로 조국과 민족을 지키는 애국애족의 총대이며 정의의 총대라는 진리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봄을 부르는 소리

편 집	성문호
장 정	김윤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양출판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4(2015)년 7월 9일
발 행	주체104(2015)년 7월 13일

ㄱ-1217ㄷ